

# Good Morning ASIA

2014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9.19~10.4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18~10.24



# 굿모닝 INCHEON 인천

2014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9.19~10.4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10.18~10.24





## 우리들의 워터파크

침병침병, 까르륵까르륵...

올여름, 이 꼬마들의 워터파크는 집 앞 골목입니다.

교통 체증도 없고 종일권 티켓도 필요 없습니다.

커다란 물통에 물만 가득 채우면 그게 풀장입니다.

아이들은 몸이 통통 불도록 신나게 놀니다.

물 부어 주는 형이나 물벼락 맞는 동생 모두 시원하고 즐겁습니다.

바라보는 행인들도 시원하고 즐겁습니다.

- 동구 송림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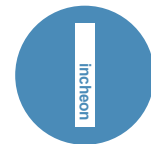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06 교황방문 스페셜 인천 천주교의 역사

10 천주교와 인천 성지

14 여름 특집 야간 명소

18 인천의 섬 교동도  
대룡시장 사람들

26 Culture Info

28 내 길 내 일 인천 사이클의 대부 이홍복

30 News Brief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최종 선정 외

34 의정뉴스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부의장 인터뷰

36 '인천공보'로 본 60년 전 인천 저울논 속여 먹던 악질 상인 5명 적발

38 생활정보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외

41 모닝커피 한잔 스마트 독립군 '인천N방송'

42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외

발행처 인천광역시 발행일 2014년 8월 1일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편집인  
대변인 편집장 유동현(미디어팀장) 취재 편집위원 이용남 / 편집위원 정경  
숙 / 편집위원 김윤경 사진 김보섭 · 정정호 · 홍승훈 · 유창호 · 김상덕(자유  
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0-  
84900-42-81 편집디자인 · 인쇄 웨스트코(주)

이천십사년 팔월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48

contents

45. 2014 Great Asia 로(路)드  
사막에 핀 황금빛 꽃 두바이를 가다

49. 에티켓  
공연 예절

50. 2014 인천AG  
입장권 및 기념주화 구매

54.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캄보디아

56. 하나되는 아시아  
노을을 향한 손짓 외

58. Asiad News  
강릉 찍고 부산까지~ 인천AG 홍보 외



표지이야기

▶ 록 페스티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인천의 대표 축제인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8월 1일부터 3일간 열려, 대한민국을 록의 열기로 흠뻑 취하게 합니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을 기다렸던 시민들은 태양과 땅을 울리는 음악소리에 맞춰 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40억 아시아인들이 하나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완성될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진은 부탄의 전통공연인 뽀나카중

## @120incheon

시민께서 인천시 종합민원센터인 미추홀콜센터의 트위터(@120incheon)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이 하시는 말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라에 또다시 냄새가 진동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서구청 당직실(560-4222)로 확인한 결과, 금일 자정 경 청라 지역에 악취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방문했으나 악취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서구 악취 민원 콜센터(560-5950)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잘 안 될 경우 서구청 당직실(560-4222)로도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00번 인천버스 강남역발 막차 운행 기사가, 노선을 물어보는 고객에게 스스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으며 반말로 답합니다.

먼저 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을 드린 점 대신 사과드립니다. 불편 사항을 운수회사인 인강여객(885-6900)에 전달해 시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추후 같은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출근시간대 공항철도 서울역행 열차 증설과 관련해 건의합니다. 승객들이 열차에서 넘어지며 불편을 겪는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코레일공항철도 고객센터(1599-7788)에 열차 증설과 관련한 시민님의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승객들의 민원이 많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내용만 확인되며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공항철도 고객센터(1599-7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 통통(通通)

인천은 '통통'합니다.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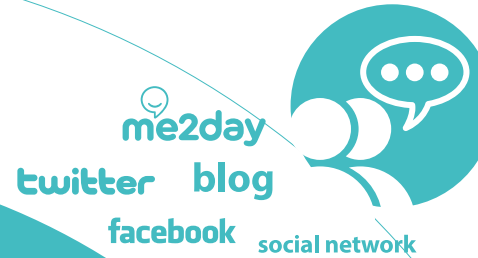


### 인천시 미디어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영문소식지 인천나우 (Incheon Now)  
다문화신문 다사랑 (dasarangnews.com)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활력 넘치는 인천 기대

독자 송민규(44 · 남동구 구월동)



송민규님은 인천지하철 예술회관에서 '류 수제가방(010-3007-106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명동 일대에서 가게를 하다, 4년 전 인천으로 와 상가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탤런트 김혜선, 이경진, 아나운서 전현무 등도 그의 고객. 자부심 넘치고 부지런하게 인천에서의 삶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서울에서 살다가 3년 전에 인천 만수동으로 왔다. 가게도 서울 한복판인 명동에서 구월동으로 옮겼는데, 처음에는 사람들도 없고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인천의 매력에 푹 빠졌다. 여기 사람들은 한번 인연을 맺으면 손님을 소개시켜 줄 정도로 정이 많고 따뜻하다. 서울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굿모닝인천'과의 인연 지인이 책을 소개해주었다. 인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로서 매우 반가웠다. 가게를 하느라 인천 곳곳을 다니지 못하는데, 책을 통해 인천을 보고 느끼고 있다.

인천에 하고 싶은 말 인천 예술회관에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상권이 죽어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활기차졌다. 지금 우리 가게에는 인터넷을 검색해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는 손님들도 있다. 실력과 열정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서울 중심가보다 더 활력 넘치는 인천을 기대한다.



###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 구원의 삶 영원하며 핍박과 박해를 견디다

이달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교황의 방문으로 가톨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천은 가톨릭의 역사가 깊게 배어 있는 도시다. 오랜 수난과 박해 속에서도 구원을 영원한 숭고한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복음의 꽃봉오리를 피워냈다. 200년이 넘게 이어 온 인천 가톨릭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 서구 경서동 ‘진떨이’ 숨은 신자들 동네

임금이 하늘이라고 여기던 시절, 양반과 상놈의 신분 차가 인생을 결정하던 시절, 먹고 살기가 지독히도 팍팍했던 시절, 백성들에게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천주교는 어렵고 고달팠던 시대에 들어와 백성들에게 구원의 상징이자 현실을 견디며 살아가는 힘이었다.

우리나라 천주교는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되기 전까지 몇 차례의 지독한 박해를 겪는다. 기오, 병인·병오, 신유박해가 대표적 사건이다. 이런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인천의 가톨릭신자들은 때로는 숨고 흩어져 살면서 신앙을 지켰다. 낮에는 웅기와 새우젓 장사로 생계를 잇고, 밤에는 기도와 교리를 외며 신앙공동체를 유지했다. 서구 경서동 ‘진떨이 마을’은 천주교 신자들이 웅기나 질그릇을 빚으며 숨어 살았던 동네로 알려져 있다.

인천에 가톨릭이 전파된 것은 1784년경으로 추정한다. 이즈음 우리나라 최초의 영세자인 이승훈이 일반인들에게 세례를 시작했다. 그래서 1784년을 한국 가톨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인천은 오랜 역사만큼 초기 조선 천주교를 이끈 선각자가 여럿 나왔다.

첫 영세자인 이승훈(세례명 베드로)은 참수당하여 지금 장수동(옛 반주골)에 묻혔고, 그의 아들도 박해를 당한 후 이곳에 안장됐다. 강화읍 월곶리 대모동은 황사영(알렉시오, 1775~1801)이 태어나고 유년기를 보낸 곳이다. 황사영은 1801년 신유박해 상황과 한국교회 실정을 북경 주교에게 알리는 탄원서인 ‘백서(帛書)’를 작성한 인물이다.

인천 신앙공동체가 기록으로 확인된 것은 1830년대 들어서다. 당시 인천에 살던 이루치아의 집에 남영혁(세례명 다미아노, 1802~1839)이 교리를 강론했다는 증언이 있다.

조선 말 일어났던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사건은 인천에도 성인(聖人)을 탄생시켰다. 1839년 일어난 기해박해때 순교한 인천 출신의 민극기와 부평 출신의 김성임, 우슬임이다. 이들은 1984년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맞아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에 의해 성인으로 추대됐다.

### 답동성당 건립, 천주교 뿌리 더 깊어지는 계기

1866년에 일어난 병인박해와 병인양요로 천주교 탄압은 전국적으로 참혹했고, 인천과 강화에서도 많은 신자들이 순교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천 가톨릭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일은 1897년에 완공된 답동성당의 건립이다. 답동성당은 인천 최초의 성당으로 인천지역에 천주교 신자들이 공개적인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성당의 건립으로 천주교의 뿌리는 더 깊어졌다.

1961년은 인천교구가 서울대교구에서 분리되어 대목구로 승격된 뜻 깊은 해다. 교구의 분리는 그만큼 인천에 신자와 교세가 커졌다는 반증이다. 대목구의 승격으로 독자적인 교계 제도의 설정과 활동이 가능해졌다. 현재 인천교구는 인천, 부천, 안산 일대를 관할하며 47만4천여 명의 신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교구 규모는 서울, 수원, 대구에 이어 네 번째다.



프란체스코 교황

### 프란체스코 교황, 인천출신 신자에 ‘복자’선포

이달 14일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다. 교황은 이번 방문에서 가톨릭 교회가 공경하는 124명에 대한 복자(福者)를 선포하는 시복식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주재한다. 이번 124위 복자 중에는 인천출신 신자 두 명이 포함되어 있다.

복녀 이 안나(1841~1867)는 인천 재궁골의 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충청도 서촌에 살던 교우 송 베드로의 아들과 혼인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복녀 안나는 1866년 병인박해 후 체포되어 배교할 것과 고문에 시달렸으나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이고 순교했다. 그녀의 나이 27세였다. 복녀 심조이(바르바라, 1813~1839)는 인천 양반 집에서 태어나 20세 무렵 홍봉주(토마스)와 결혼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그녀는 함께 살던 교우들과 체포되어 전주감영으로 끌려갔다. 그녀는 고문의 형벌과 두 살짜리 막내아들이 굶주림과 병으로 고통 당하는 모습을 신앙의 힘으로 견디어냈다. 1839년 순교했고, 27세였다. 여성 순교자들의 이름 가운데 ‘조이’라는 이름이 유난히 많다. 당시 조이는 ‘과부 혹은 나이많은 여성을 젊잖게 가리킬 때 붙이는 말’이었다.



답동성당 중 축복식 기념(1900년 4월 17일)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 볼  
수 있습니다.



# 희망의 별 품고 믿음의 꽃봉오리 피워

인천 중구 항동에 위치한 제물진두는 인천 가톨릭의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품은 성지다. 150여 년 전 종교와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자 했던 신자 10명이 이곳에서 순교했다. 핍박과 박해가 거셌지만 구원의 신념을 오롯이 지켰던 숭고한 님들이다. 150여 년 전이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다. 인천엔 가톨릭 수난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다. 현실의 구차하고 힘든 삶보다 구원을 꿈꾸었던 이들의 숨결이 성지 곳곳에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유창호 자유사진가



현양동산

##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

### 이름 없이 죽어간 순교자들을 기린다

한국 가톨릭은 200년이 넘는 역사를 거치는 동안 혹독한 박해를 몇 차례 겪었다. 그 과정에서 1만 명에서 3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했다. 강화도에 위치한 '일만위 순교자 현양동산'은 모든 순교자들 특히 무명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 원래 성지는 아니지만 교회가 의지를 갖고 성지로 조성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고 사색하고 명상하는 공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오래된 숲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짙푸른 나무, 잘 조성된 숲길에 예수 고난의 역사, 가톨릭과 관련한 다양한 상징들이 세워져 있어 그 의미를 더한다. 이곳은 국내의 유명한 가톨릭 성지의 모습을 재현해 방문객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 '항사영 백서사건'으로 유명한 충북 제천 베론 성지, 다락골 줄 무덤,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귀국할 때 타고 온 거룻배 등을 볼 수 있다. 또 핍박과 박해시대에 웅기장사를 하며 생계를 잇고, 교우들과 정보를 나누며 신앙심을 지켰던 천주교인들의 삶도 웅기로 표현해 놓았다. 현양 동산은 '삶의 성지'다. 엄숙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누구나 찾아와 기도하고 쉬어갈 수 있다.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르다 보면 이름없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느껴진다.

위치 강화군 내가면 교천리 1486 문의 832-6318



답동성당



## 답동성당

### 120여 년, 민족의 아픔과 수난을 함께 겪다

인천 최초의 성당으로 1897년에 건립해 인천 가톨릭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성지다. 답동성당의 건립 의미는 신부가 상주하며 제대로 된 예배,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했다는 데 있다. 1897년 7월 성당 봉헌식이 열렸고, 당시로서는 보기 힘든 광경으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다. '천주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890년 인천에 성당의 필요성을 느낀 파리 외방선교회 빌렐 신부가 현재의 땅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신자들로부터 모금운동을 벌여 성당을 세웠다. 땅은 당시 인천 감리 민선훈(세례명 요셉)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지만 기부받는 형식을 취했다. 성당의 종은 1900년 주로 항구에 사는 교우들의 기부금으로 외국으로부터 주문해 들여왔다. 예전에는 제물포 본당, 인천 본당으로 불리기도 했다. 성당은 종교적 성지지만 민족의 아픔과 수난사를 함께했다. 일제 말기 성당 종은 전쟁물자로 탈취당한 뒤 광복이 돼서야 돌아오게 된다. 1950년 9월 16일 인천상륙작전때는 포탄을 맞아 천장이 뚫어질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성당 내부는 스테인드글라스 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1979년 창문에 설치됐고, 스테인드글라스에 비치는 빛은 현란하게 아름답고도 장엄하다. 성당은 1981년 9월 25일 사적 제287호로 지정됐고 벽돌조 로마네스코 양식의 건물이다. 건축 면적은 약 1천15㎡다.

위치 중구 우현로 50번길 2 문의 762-7613





### 제물진두

#### 10명 순교자들의 넋 오롯이 서려

제물진두는 인천지역 내 다른 순교지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처형된 곳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순교 터다. 이곳은 프랑스와 병인양요, 미국과 신미양요를 치른 후, '외적과 내통한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해 주민들에게 경계심을 심어준다'는 의도에서 대원군이 서울 한강변의 양화진두(절두산)와 함께 천주교인들을 공개 처형한 장소다. 위치는 중구 향동 파라다이스호텔이 위치한 방향으로 해안성당 뒤편 벼랑으로 추정한다. 제물진두에서는 10명의 신자들이 처형됐다. 1868년 4월 15일 부평읍내에 살던 손 베드로 넓적이, 김씨(손 베드로 부인), 백치문(손 베드로 사위), 이마리아 손자 등이 잡혀와 이곳에서 순교했다. 신미양요 전후인 1871년에는 이승훈의 증손 이연구, 이균구가 인천 바닷가에서 미국 함정을 살피다가 체포됐다. 그들은 배에 들어가 길을 안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목숨을 잃었다. 그해 5월 21일에는 이재겸의 부인 정씨, 김아지 등이 사학죄인으로 숨을 거뒀다.

중구 향동 한중문화관 옆에는 10명의 순교자들을 기리고자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 '제물진두 순교기념경당'이다. 이곳엔 순교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부조가 붙어있고 기도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내부 천장에는 십자가 모양의 창문에 스테인드글라스를 부착해 경건한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있다. 제물진두는 순교지의 의미 말고도 김대건 신부가 신부 서품을 받기위해 중국으로 떠나는 배를 기다렸던 장소이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입국한 외국인 수녀들이 첫 한국 땅을 밟은 곳이기도 하다. 제물진두 성지 위로는 해안성당이 자리한다. 54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성당은 원래 인천에 거주하는 화교들을 위해 건립했다. 처음 이름도 '선린화교성당'이었다. 화교들을 위한 선교 공간으로 시작했으나 1970년대 이후 화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신자 수가 줄어들었고 이후 '해안성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위치** 중구 향동 1가 5 **문의** 764~4191



중구 향동 해안성당

### 갑곶순교 성지

#### 김대건 신부와 초기 외국 선교사들이 드나들던 바닷길

강화도는 서해안 수도 방어의 요충지로 천주교가 일찍 전파된 곳이다. 이곳은 19세기 중반, 동·서양의 사상과 문화가 만나 첨예한 갈등을 빚은 곳으로 상징된다. 이 때문에 병인박해 때부터 수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1866년 10월 14일 프랑스는 함대 7척을 강화도 근해에 정박한 후 이곳 갑곶진에 육전대를 상륙시켜 점령하고 정찰한 후 강화부를 습격하여 각종 군기와 양식, 서적 등을 약탈하는 사건을 일으킨다. 이것이 병인양요다. 병인양요로 강화지방에서는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시작된다.

1866년 박해를 피하지 못한 천주교 신자들 중 일부가 서울 양화진에서 참수되었고, 1868년에는 강화출신의 박상손, 우윤집, 최순복 등이 끌려나와 갑곶나루터에서 순교했다. 병인양요 이후 관은 천주교도들이 이양선과 내통한다고 여겨 해안경계를 강화했고, 외세와 연락하는 자들을 '선참후계(先斬後啓)'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은 '사학도의 무리'였고, 외세와 결탁하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존재들이었다. 갑곶 해안은 김대건(세례명 안드레아, 1821~1846)신부와 초기 외국 선교사들이 드나들던 바닷길이기도 했다.

현재 갑곶순교 성지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의 과정을 신자들이 직접 체험 할 수 있도록 예수의 고난 14처를 조성하고 나무십자가를 메고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지는 슬픔과 고난의 역사가 배어 있지만 주변 풍경은 슬프도록 아름답다.

**위치**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44-2 **문의** 933-1525

### 이승훈 베드로 묘

#### 한국 최초의 선각자, 최초의 영세자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 이승훈 베드로의 묘역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주소지가 나와 있긴 하지만 초행길인 탓이 컸다. 교구에서 성역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길이 잘 정비되어 있지는 않았다. 묘역은 남동구 장수동 남동정수장 뒷길로 이어진 철담을 따라 산길을 10여 분 정도 걸어야 나타난다. 묘지는 단출했고, 길 중간 중간에 예수 고난을 담은 부조를 설치해 고난의 길을 간 선각자의 삶을 반추하게 한다.

묘지는 한국 천주교회의 선각자, 최초의 영세자 이승훈(1756~1801)과 그의 아들 신규(마티아, 1794~1866), 택규(비신자)의 묘가 안치돼 있다. 그는 오랫동안 교회의 주역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반대파들로부터 천주교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원흉으로 지목되어 어려움을 겪다가 신유박해 때 체포되어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 참수됐다.

이승훈은 부친을 따라갔던 중국 북경에서 1784년 세례를 받았다. 이후 귀국하여 이벽, 정약전, 정약용, 권일신 등에게 세례를 주었고 신자공동체를 형성시켰으며 이들과 함께 한국 천주교를 창설했다. 비록 여러 번 배교하고 교회를 떠났지만 초기 한국 천주교회를 주도했고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성직을 임명하기 위해 운영했던 가성직 제도를 만들면서 한국 천주교회의 첫 장을 연 인물로 평가된다.

**위치** 남동구 장수동 산 132-1 남동정수장 뒷산 **문의** 464-0888



강화 갑곶순교 성지



이승훈 베드로 묘



# 햇 뜨거운 여름밤, 햇 스쫃!

뜨거운 별을 피하고 그늘을 찾는 데 급급 하느라 몰랐다. 여름이기에 누릴 수 있는 낭만과 여유를...  
해가 뉘엿뉘엿 지고 시원한 바람이 목덜미의 땀을 씻어 내면, 그제야 ‘아, 여름은 참 멋진 계절이구나’  
싶다. 그냥 보내기엔 길고도 아쉬운 이 여름밤, 인천 곳곳에 숨은 야간 명소를 찾아서.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송도 캠핑장

## 마음에 별이 총총, 도심 캠핑

도시 한가운데, 생각지 못한 세상이 펼쳐진다. 송도국제 도시 송도3교를 지나 200m 정도 가면 캠핑장을 알리는 표지판이 보인다. 색색의 텐트가 모여 있고 그 사이 낮은 테이블과 의자가 웅기종기 놓인 풍경. 사방을 둘러싼 빌딩숲이 졸지에 낮설게 느껴진다. 이곳은 피크닉 테이블과 그릴 등을 갖춘 바비큐장을 비롯해 족구장, 평상, 이동식 화장실 등을 갖추어 웬만한 캠핑장 못지않다. 지난달 말에는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뒤 공원 내에 오토캠핑장이 문을 열었다. 2천㎡에 이르는 캠핑장에 20대의 차량 캠핑장을 비롯해 캐러밴 6면, 데크 36면, 일반 텐트 66개를 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한밤의 캠핑장. 지글지글 바비큐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 소리가 후텁지근한 밤공기 사이를 시원하게 가로지른다.

**운영시간** 송도 캠핑장은 오후 10시까지, 선착순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한 걸음 더**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월미도 가족윙킹 캠핑장, 경인아라뱃길 캠핑장도 메모해 둘 것.

## 빛나는 내일 약속하는, 도시의 밤

어둠을 밀어내고 하나둘 솟아오르는 불빛. 태양 아래 감춰졌던 도시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GCF 사무국을 비롯해 UN기구가 동지를 튼 G타워는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 29층에 자리 잡은 하늘공원 전망대에 오르면 송도국제도시의 위용이 새롭게 다가온다. 망원경이 설치돼 있고 앉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오래도록 하늘과 맞닿은 풍경을 붙잡을 수 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빌딩숲과 바다로 세계로 묵묵히 뻗어나가는 인천대교... 밤의 적막을 깨고 낮과는 다른 자태를 드러내는 송도는 찬란하고 아름답다. 밤은 하루의 또 다른 시작. 도시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내일을 약속한다.

**운영정보** 전망대 운영시간은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쉰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월미전망대



G타워 하늘공원 전망대

## 달빛 별빛 한잔, 전망대 카페

월미산에서 하늘과 가까운 곳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이에 월미전망대가 있다. 나선형의 계단을 따라 투명한 유리로 된 전망대를 오르면 인천을 한아름 품을 수 있다. 4층에는 ‘월미달빛마루’ 카페가 있다. 사방이 훤히 보이는 창밖으로 하늘과 바다가 빛어낸 작품이 와이드스크린으로 펼쳐진다. 인천항과 인천대교를 품은 밤바다는 빛으로 가득하다. 카페는 송도브릿지호텔에서 위탁 운영해 식재료가 신선하며 음식의 품미도 뛰어나다. 해가 슬며시 수평선으로 제 모습을 감추는 듯싶더니, 이내 별들이 서해바다 하늘을 수놓는다. 차 한 모금에 달빛 별빛 한 모금, 그렇게 한여름 밤의 시간이 흘러간다.

**문의** 월미달빛마루 765-0727 **운영시간** 11:00~19:00  
**메뉴** 컵빙수 4천원, 아메리카노 3천원

## 물길 따라, 스트리트 몰링

서울에 신사동 가로수길이 분당에 정자동 카페거리가 있다면, 인천에는 송도국제도시 커널워크가 있다. 송도 커널워크에 입점한 유럽형 몰링 스트리트인 NC 큐브는 이미 인천의 즐겨찾기 명소로 자리 잡았다. 봄·여름·가을·겨울 동으로 이뤄진 이곳에는 유유히 흐르는 물길을 따라 쇼핑매장 90여 곳과 식당, 카페 50여 곳이 줄지어 있다. 또 거리 곳곳에 노천카페와 산책로가 있고 주말이면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열려, 인근 주민은 물론 멀리에서도 수많은 발걸음이 이어진다. 길게 이어지는 물길과 하늘 높이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가 이글거렸던 한낮의 무더위를 가라앉힌다.

**문의** NC 큐브, 커널워크점 723-6300  
**영업시간** 10:30~22:00 **위치** 연수구 송도동 17-1





### 싸이처럼 놀자~ 테마파크 야간개장

한때 소풍을 갔다하면 월미도, 놀이기구를 탔다하면 디스코광장이던 시절이 있었다고? 모르는 소리. 월드스타 싸이와 래퍼 스눕 독(Snoop Dogg)도 ‘행오버’ 뮤직비디오를 통해 월미도에서 한바탕 신나게 놀다 갔다. 이제는 추억을 넘어 ‘세계적인’ 놀이시설이 된 월미테마파크는 밤이면 휘황찬 불빛으로 보이는 신세계로 인도한다. 밤하늘을 가르고 저 달에 닿을 듯 높이 솟은 대관람차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방망이질 친다. 한편에는 전설의 디스코 놀이기구 ‘타가다’가 환란한 불빛을 뿌리며 빙글빙글 돌아간다. ‘바이킹’과 ‘크레이지 크라운’도 신이 나서 춤을 춘다. 밤은 깊어 가는데, 월미도 바다는 여전히 사람들의 환호성과 웃음소리로 넘실거린다.

**문의** 월미테마파크 www.my-land.co.kr, 761-0997  
**운영시간** 10:00~20:00, 주말·공휴일 10:00~23:00  
**위치** 중구 월미문화로 81



월미테마파크

### 아라뱃길에서 낭만 크루즈

서울에서 김포, 인천을 지나 서해로 흘러가는 경인 아라뱃길은 밤이면 낯과는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낸다. 12개에 이르는 다리는 시시각각 색색의 조명을 뿜으며 저마다의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산 협곡에 걸린 아라마루 전망대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UFO 같다. 주말이면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유람선 ‘VIP 디너크루즈’가 닻을 올린다. 바다에 젖어드는 노을과 야경을 바라보며 선상공연과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각국에서 온 무용수들이 펼치는 춤과 중국기예단의 공연으로 한여름 밤의 분위기가 무르익는다. 눈앞에선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 하늘에서는 불꽃이 화려한 빛을 터트린다. 꿈꿔왔던 크루즈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제법 분위기가 난다.

**문의** 현대유람선 882-5555, www.aracruise.com **운항정보** 매주 토요일 7시에 아라인천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한다. 사정에 따라 운항코스 등이 변경될 수 있다.

### 이열치열, 화끈한 야간경기 한판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땀이 뚝뚝 떨어진다. 열대야에 시달린다면, 차라리 화끈한 야간경기 한판 즐기는 건 어떨까. 조명탑에서 쏟아지는 불빛 아래, 푸른 필드에서 펼쳐지는 야간경기는 아는 사람만 아는 특별한 세계다.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는 이달 2일 울산, 10일 경남과 홈구장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승부를 겨룬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은 선수들의 땀 한 방울, 숨소리까지 포착할 만큼 관중석과 그라운드가 가까워 생동감 있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 SK 와이번스의 홈구장인 인천문학구장도 외야 파티덱, 바비큐 존 등 즐길거리 가득한 야구 놀이터다. SK 와이번스는 이달 1일, 2일, 3일 NC 다이노스와 7일, 8일 KIA타이거스와 14일 삼성과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른다.

**문의** 인천유나이티드 423-1500 www.incheonulld.com, SK 와이번스 www.skwyvern.com 455-2600



문학경기장 야간경기



경인아라뱃길 디너크루즈



자유공원 산책길



월미문화의 거리

### 한밤의 공원에서, 바다 위 산책

공원은 도시인의 마른 감성을 촉촉이 적셔준다. 응봉산의 품에 안긴 자유공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이곳에는 과거 제물포구락부였던 ‘인천중구문화원’과 ‘인천역사자료관’ 등 오랜 역사의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다. 울퉁불퉁한 도로, 계단,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을 중심으로 야간경관을 조성해, 밤바람을 맞으며 호젓하게 산책을 즐기기도 좋다. 계단을 올라 광장으로 가면 검푸른 바다와 항구, 그 안에서 잠을 청하는 선박의 모습이 내려다보인다. 한미수교100주년기념탑 아래 있는 석정루에 올라도 발아래 바다가 넘실거린다. 밤이 깊어 갈수록, 바다는 어둠을 밀어내고 하나둘 불을 밝히며 또 다른 모습으로 깨어난다.

**문의** 자유공원 761-4774 **위치** 중구 자유공원남로 25

### 발아래 바다가 흐르는 여름밤

바쁜 일상에 묻혀 휴가는 꿈도 못 꾸다지만, 탈출구는 있다. 소금기 섞인 바닷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고 발아래는 바닷물이 흐른다, 생각만으로도 시원하다 못해 차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 ‘해수욕탕 쉼터’가 문을 열었다. 바다 속 지하 110m에서 끌어올린 해양 암반수로 제대로 만들었다. 1920년대에 인기를 끌었던 해수탕 ‘월미조탕’을 재현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다. 월미도 문화의 거리 일대는 이와 함께 야간 분수, 야외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있어 밤 피서지로 제격이다.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스며들고 항구에 어둠이 내린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이 밤을 느껴 본다.

**위치** 중구 북성동1가 월미문화의 거리 내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햇빛이 스러지면, 섬은 다시 섬이 된다

강화 북서쪽 바다에 닿을 듯 말 듯 머물러 있던 섬, 교동도. 그 섬이 세상 가까이 가까이 파고들고 있다. 다리가 놓이면서 육지에서 섬, 섬과 섬 사이의 간극이 메워진 것이다. 하지만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그라지고 어둠이 내리면, 섬은 철조망을 두른 채 저 멀리 물러나 다시 혼자가 된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 다리 두 번 건너, 교동도 가는 길 |**  
교동도로 가려면 다리를 두 번만 건너면 된다. 강화초지대교나 강화대교를 타고 강화도로 가 인화리에서 교동도로 간다. 그리고 교동대교 앞 검문소에서 민통선 출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아 다리를 건넌다.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통행시간은 교동주민은 새벽 4시부터 밤 12시, 일반인은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다. 한편 교동대교가 개통하면서 강화버스터미널에서 교동도까지 운행하는 18번 버스노선이 신설됐다.  
문의 : 교동면사무소 930-4500



다리, 섬과 섬을 잇다

풍만하게 넘실거리는 바다를 상상해서는 안 된다. 짙은 해무로 뒤덮인 교동도 바다는 질  
편한 갯벌을 드러낸 채 철조망을 두르고 저 멀리 물러나 있었다.  
강화도에서 불과 1.5km 뱃길로 가도 15분, 그리 멀지 않은 거리지만 섬은 아직 비밀스레  
숨어 있다. 이 섬의 북쪽 해안선은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나면서 황해도 연백 땅과 바다를  
사이에 둔 남방한계선이 됐다. 그 역사의 상처가 이 땅의 시간을 멈추었고, 그렇게 섬은  
낙도 아닌 낙도로 서쪽 바다 한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 섬이 세상을 향해 가까이 가까이 파고들고 있다. 교동대교가 개통하면서, 육지에서 강  
화 건너 교동도로 다리를 두 번 건너면 다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리 건너 교동도로 향  
하는 길목, 군인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바다와 길 사이 철조망이 가로막고 있어 긴장감이  
흐른다. 그래서일까, 섬은 어서 오라 손짓하는 데 3.44km의 다리는 길게만 느껴진다.

가슴 먹먹한 역사의 땅

유배의 섬 강화도에서 또 유배된 섬, 교동도. 드넓은 들판과 숲에는 기나 긴 역사가 묵묵  
히 흐르고, 동네에는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그라진 추억이 아직 일상으로 남아 있다.



교동 땅을 적시는 고구저수지



출로 남은 교동읍성 남문

喬桐島

막상 교동도에 발 디디면 이곳이 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잘 정돈된 논과 밭이 시야를 가득 메우기 때문이다. 원래 교동  
도는 세 개의 섬이었는데 고려시대에 섬과 섬 사이를 막아 농  
경지를 만들었다. ‘교동에 풍년이 들면 교동 사람들은 13년을  
먹고, 강화도 전체 사람들은 3년을 먹고도 남는다’는 말이 있  
다. 기름진 평야를 품은 교동 사람들은 지금도 바다가 아닌 땅  
에 기대어 살아간다.  
섬에는 발길 닿는 곳마다 역사가 흠뻑 배어 있다. 교동도는 서  
해와 예성강, 임진강 그리고 한강을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 예  
부터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었다. 남산포는 조선시대에는 수군  
을 관할하는 삼도수군통어영이 있고 중국과 일본 배가 쉽 없이  
드나들던 포구였지만, 지금은 낡은 배 몇 척만이 지친 몸을 쉬  
고 있다.  
교동읍성도 화려했던 지난 역사를 애처롭게 읊어내고 있다.  
1629년 교동이 도호부로 승격되면서 축조한 것으로 전해지는  
성곽은, 처음에는 430m 둘레에 동·남·북 쪽에 문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문의 홍예문만 덩그러니 남았다. 그나마 남아 있는  
성곽은 마을의 담장이 되어 마른 푸서리 위에 가까스로 지탱하  
고 있다. 세월의 무상함에 가슴이 먹먹해 진다.







역사의 향기 그윽한 교동향교

화개사와 그 곁을 지키는 200살 먹은 보호수



**북녘 땅이 보이는, 세상의 끝**

화개산은 너른 품으로 섬을 아우르고 있다. 산에 오르기 전, 예스럽고 아담한 화개사가 모습을 드러낸다. 고려시대 때 창건한 사찰로, 고려 말기 유학자로 이름난 삼은(三隱) 가운데 목은과 이색이 머물며 수양했다고 전해진다. 산을 오르면 한 시간이 채 안 돼 정상에 다다른다. 끝없이 펼쳐진 수면 위로 강화도와 석모도, 불음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점점이 뿌려져 있다. 휴전선 너머로는 아스라한 기억에 머물러 있던 북녘 땅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다가온다. 섬의 북쪽 해안과 황해도 연백군 사이의 거리는 불과 3km, 저 멀리 바다가 옥심도 이념도 다 부질없다는 듯 태양 아래 넘실거리고 있다.

화개산 남쪽 기슭에는 유서 깊은 교동향교가 있다. 고려 충렬왕(1286년) 때 유학자 안향이 원나라에서 공자상을 들여와 이곳에 모셨다. 시간을 거스르듯 홍살문을 지나 향교에 다다른다. 담백하면서도 고아한 멋이 흐르는 옛 건축물이 처음부터 하나였다는 듯 숲 한가운데 내려앉았다.

더 내려가다 보면 잡풀이 수북히 자란 들판에 비석 하나가 오롯이 서 있다. ‘연산군 유배지’라고 새겨진 글씨가, 권좌에서 쫓겨난 연산군이 이곳에서 위리안치(圍籬安置) 당하다 31년의 짧은 생을 마쳤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한번 오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던 유배의 땅. 교동도에는 연산군 외에도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 인조의 동생 능창대군, 철종의 사촌 익평군, 광해군 등이 쓸쓸히 지내다 갔다. 그들에게 교동도는 슬픔의 빛깔로 도배한, 세상의 끝이었으리라.



옛 추억이 일상으로 흐르는 대룡마을

**멈추었던 시간을 깨우다**

화개산에서 내려와 영산골을 지나면 교동도의 중심지인 대룡마을이 나온다. 섬에서 가장 변화한 곳이라고는 하지만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좁은 골목은 6,70년대를 연상시킨다. 교동이발판, 동산약방, 중앙신발, 대룡장 의사, 붉은노을 호프치킨..., 구불구불 좁다란 시장통에는 발길 닿는 곳마다 세월의 흔적이 끈적하게 녹아 있다. 대룡시장은 6·25 전쟁으로 황해도에서 건너 온 피란민들이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다 휴전선이 가로막으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이북 사람들이 군에서 지원해 준 나무로 가게를 짓고 시장을 형성했다. 세월의 곱절이 자욱이 쌓인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그 시절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얹은 것들이다. 그때의 시간은 지금도 일상으로 흐르고 있다. 시계방 할아버지는 침침한 눈을 비비며 시계를 고치고, 사이좋은 노부부는 약국 아닌 약방에서 약을 팔고, 마을에서 유일한 이발관에선 여전히 분주함이 새어 나온다. 수평선 위로 뜨거운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바다를 붉은 빛으로 물들인다. 교동도는 일반인에게는 일몰 30분 후까지 통행시간을 제한한다. 해거름 무렵 서둘러 다리를 건넌다. 이제, 이 길 따라 낮선 발길들이 이어지고 멈춘 듯 머물러 있던 시간도 깨어날 것이다. 다리를 건널 수록 점점 작아지는 섬. 파도가 밤새 파랗게 달려드는 바다에, 섬은 다시 홀로 남았다.



# 멈춘 시간 안에서, 그리움을 달래다

잠시 머물다 곧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세월은 흘러흘러 60여 년이 지났다. 돌아갈 수 있을까, 차마 떠나지 못하고 머무른 시간이 깊어 갈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짙어만 간다. 대룡시장은 북에서 온 실향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장사를 하면서 만들어졌다. 나지막한 집들이 다닥다닥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을 걷노라면 자꾸 달력을 들여다보며 날짜를 확인하게 된다. 멈추어진 시간 안에서 섬을 지키는 대룡시장 사람들을 만났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상덕 자유사진가

## 교동이발관

### 가위질 할수록, 소복소복 쌓이는 그리움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섬 교동도, 하지만 TV 프로그램 ‘1박2일’에 소개되면서 대룡시장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가장 출세한 건 ‘교동 이발관’이다. 강호동과 은지원이 여기서 머리를 잘랐다. 방송을 보고 멀리 서울에서 두 달에 한 번 머리를 자르러 오는 단골도 생겼다.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 지광석(75) 할아버지는 전쟁을 피해 10살 때 교동으로 왔다. 곧 고향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강산이 여섯 번 변했다. 할아버지는 1970년 이발관의 문을 열어 지금껏 가위질을 하고 있다. 젊은 시절 잠시 외양선을 타고 군 생활을 한 것 외에는 섬을 떠난 적이 없다. “딸들이 인천에 사는 데, 가면 하루도 못 견디겠어. 여기는 죄다 문을 열어 놓고 사는데 거기선 문 열고 또 문을 열고 몇 개는 열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 원. 아파트는 답답해.” 이발을 받던 동갑내기 죽마고우 전채순 할아버지가 말을 거든다. “어디 교동 만한 데가 있나. 자물쇠가 없는 마을인데, 다리가 놓여서 외국인들의 출입이 잦아 질 테니 이제 문을 잠가놓아야 하나봐.” 다리가 놓이면서 섬은 육지가 됐고, 육지인이 된 섬 사람들에게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향긋한 면도 거품 냄새 따라 소곤소곤 피어나는 어르신들의 대화를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 중앙시계수리방

### 멈춘 시계처럼, 땀도는 시간

건넌집 시계수리방의 황세환(76) 할아버지도 대룡시장의 터줏대감이다. 3.3㎡(1평) 남짓한 가게는 두 사람이 들어가도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비좁다. 안에는 과연 고쳐 쓸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시계와 부품들로 그득하다. 할아버지는 동네 어르신들과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른 한낱을 보내고 있었다. 서로 특별한 말은 오가지 않는다. “장사는 잘 되세요?”, “잘 되긴. 다리가 아파서 할 게 없으니까. 나오는 거지.” 답을 알면서도 질문을 드린 게 미안해진다. 교동에서 나고 자란 할아버지는 부모 밑에서 농사를 짓다 스물네 살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다. 이후 육지에서 전자제품 고치는 기술을 배워 고향으로 와 시계방을 열었다. 의족을 찬 그에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너도나도 태엽을 감는 기계식 손목시계를 차던 시절에는 시계에 밥을 주느라 눈코 뜰 새 없었지만, 지금은 며칠 아니 한 달에 한 번 배터리를 가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찾는 이 없어도 항상 이른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어 놓는다. 시계바늘이 멈춘 시계처럼, 할아버지의 시간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 동산약방

### 의원만큼 믿음직한 할아버지 약방

이발관 가까이에는 ‘동산약방’이 있다. 약국이 아닌 약방이라고 쓰인 간판이 걸린 건물, 세월이 쓰다듬어 반질반질해진 약 진열대가 옛 시간의 향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나익환(83) 할아버지와 한사코 이름 밝히기를 사양하는 세 살 터울의 할머니는 이곳에서 50여 년째 약을 팔고 있다. 섬에는 처음 다섯 군데의 약방이 있었는데, 약을 팔던 어르신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면서 동산약방만 덩그러니 남았다. “엄마 배 아파요, 약 주세요.” 멀리 바다 건너에서 시집 온 작고 까만 얼굴의 어린새댁이 서툰 한국말로 약을 사 간다. 섬에는 도시에는 흔한 종합병원 하나 없지만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건네주는 약만으로도 충분히 위안을 얻고 안도한다. “뭐 볼 게 있다고 사람들이 오는지 모르겠어. 저기 처마 밑에 제비집 보여? 한동안 저 제비집에 사는 제비를 그렇게 찍어 가더라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제비의 재잘거림이 들리지 않는다고 할아버지는 말끝을 흐렸다. 노부부는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물로 보낸 딸은 뉴욕시립대병원 의사로 아들은 의대교수로 키워냈지만, 정작 당신들은 이 섬을 한 번도 떠난 적 없다. 하지만 언젠가 이들 부부의 생이 다하는 날, 교동도에 마지막으로 남은 약방도 문을 닫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환하기만 한데, 그 미소가 아직 머물러 마음을 쓸쓸하게 한다.






관광지 마냥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외지에서 섬으로 들어 온 사람들도 있다. 이정현(56) 아주머니는 3개월 전에 일산에서 교동도로 와 ‘나들목식당’을 열었다. 오빠들, 맛있는 게들 드셨어?”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동네 어르신들과 격이 없다.



“어디서 오셨수? 한잔 하지 그래.” 전신제(69) 할아버지는 대를 이어 이 땅에서 살아 온 교동도 토박이다. 여기만큼 깨끗한 땅이 없다며 또 교동쌀 만큼 맛있는 쌀이 없다고 한 가마니 집으로 보내 줄 수도 있다고 인심을 쓴다.

‘중앙신발’ 좌판에 셋노란 아이 고무신이 삼포시 놓여 있다. 조기훈(72) 할아버지는 6·25 전쟁이 나고 10여 년 후에 서울에서 교동으로 왔다. ‘세끼 밥 먹고 살면 됐지’, 교동도가 고향이나 다름없는 할아버지는 이 섬을 떠날 생각이 없다.



Culture Info										2014. AUGUST									
 performance										 musical									
 exhibition										 concert									
 drama																			
12										1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24									
24										31									
31										25									
25										26									
26										27									
27										28									
28										29									
29										30									

<div>8</div> <div>코리아기타오케스트라 '세계음악여행'</div> <div>부평문화사랑방</div> <div>오후 7시 30분 / 3천원</div> <div>☎505-5995</div> <div></div>	<div>15</div> <div>제69주년 광복절경축식 및 광복절 모닝콘서트</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전 10시 / 초대</div> <div>☎440-2214</div> <div><div>서머페스티벌</div><div>해설이 있는 조재혁 피아노리사이틀</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div>오후 3시</div><div>전석 1만원</div><div>☎1588-2341</div><div><div>황.금.토.끼</div><div>해설이 있는 꿈의 콘서트</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div><div>오후 7시 / 무료</div><div>☎420-2051</div></div></div>	<div>20</div> <div>가족뮤지컬 '매직오즈'</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전 10시40분 / 전석 1만5천원</div> <div>☎사랑극단 꼬마세상 010-2898-0014</div> <div><div>2014 Stage on Screen</div><div>매튜본의 댄스뮤지컬 '백조의 호수'</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div><div>오후 7시30분 / 무료</div></div> <div>21</div> <div>인천시립합창단 제141회 정기공연 '여름방학 청소년음악회'</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7시30분</div> <div>전석 1만원</div> <div>☎420-2784</div> <div><div>가족뮤지컬 '매직오즈'</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div>오전 10시40분</div><div>전석 1만5천원</div><div>☎사랑극단 꼬마세상 010-2898-0014</div><div><div>2014 Stage on Screen</div><div>마리우스 프티파의 낭만발레 '지젤'</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div><div>오후 7시30분</div><div>무료</div></div></div>	<div>2014 Stage on Screen</div> <div>빅토르 위고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div> <div>오후 8시 / 무료</div> <div>24</div> <div>제2회 인천YMCA 정기연주회</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7시</div> <div>전석 5천원</div> <div>☎YMCA청소년관현악단 209-9788</div> <div>25</div> <div>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및 콘서트</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2시 / 초대</div> <div>☎440-4278</div> <div>27</div> <div>제22회 새얼국악의밤</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7시30분 / 초대</div> <div>☎885-3611</div> <div><div>2014 Stage on Screen</div><div>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div><div>오후 7시30분 / 무료</div><div>국악놀이극 '우당탕탕 동고집전'</div><div>부개문화사랑방 / 오후 7시 30분 / 3천원</div><div>☎507-5996</div><div>동락, 열린무대'</div><div>남동소래아트홀 3층 스튜디오 제비</div><div>오후 8시 / 무료</div><div>☎453-5713</div><div>인천문화회관 기화공원 하우스콘서트 '4인조 재즈밴드 김책재즈카르넷'</div><div>인천문화회관 / 오후 7시 30분</div><div>무료</div><div>☎868-7196</div></div>	<div>30</div> <div>EBS 가족뮤지컬 '꼬마버스타요'앵콜!</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div> <div>1층 R석 5만원, 2층 S석 4만원</div> <div>☎1566-6551</div> <div><div>스테이지149 -연극선집1</div><div>'한 여름 밤의 꿈'</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div>오후 3시, 7시 / 전석 2만원</div><div>☎1588-2341</div><div><div>황.금.토.끼</div><div>인천시립교향악단 '브라스 판타지아'</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div><div>오후 7시 / 무료</div><div>☎420-2051</div><div><div>2014 Stage on Screen</div><div>틸라이스&amp;앤드류 로이드 웹버의 록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div><div>오후 8시 / 무료</div></div><div>31</div><div>EBS 가족뮤지컬 '꼬마버스타요'앵콜!</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div>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div><div>1층 R석 5만원, 2층 S석 4만원</div><div>☎1566-6551</div></div></div>		
<div>12</div> <div>2014 서머페스티벌</div> <div>'해설이 있는 인천시립교향악단 해피클래식'</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3시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div> <div>☎1588-2341</div> <div><div>사랑방별씨네(영화) '아버지의 이메일'</div><div>부평문화사랑방 / 오후 7시 / 무료</div><div>☎505-5995</div></div> <div>13</div> <div>2014 서머페스티벌 '해설이 있는 바로크와 고전주의음악'</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5시 / 전석 1만원</div> <div>☎1588-2341</div> <div><div>커피콘서트Ⅷ</div><div>자전거 탄 풍경 '우리들의 여름'</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div>오후 2시 / 전석 1만5천원</div><div>☎1588-2341</div><div></div></div>		<div>16</div> <div>서머페스티벌 '해설이 있는 낭만주의 음악 with 프라임필'</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 <div>오후 5시 / 전석 1만원</div> <div>☎1588-2341</div> <div><div>서머페스티벌</div><div>해설이 있는 실내악 연주회</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div>오후 3시 / 전석 1만원</div><div>☎1588-2341</div><div><div>황.금.토.끼</div><div>드림웍스 '스틱컬롱팡'</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div><div>오후 7시 / 무료</div><div>☎420-2051</div></div><div>17</div><div>서머페스티벌 '해설이 있는 민족주의와 근현대음악'</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div>오후 3시 / 전석 1만원</div><div>☎1588-2341</div><div><div>서머페스티벌</div><div>해설이 있는 오페라 갈라 '사랑의 묘약'</div><div>오후 5시 / 전석 1만원</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div></div><div>19</div><div>바이올리니스트 박중배 초청 'Vivaldi in Buenos aires'</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div><div>오후 7시30분 / 전석 1만원</div><div>☎인음챔버오케스트라 888-0817</div><div><div>가족뮤지컬 '매직오즈'</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div>오후 4시 / 전석 1만5천원</div><div>☎사랑극단 꼬마세상 010-2898-0014</div><div>인음챔버오케스트라 888-0817</div><div><div>가족뮤지컬 '매직오즈'</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div>오후 4시 / 전석 1만5천원</div><div>☎사랑극단 꼬마세상 010-2898-0014</div><div><div>사랑방별씨네(영화) '더 헌트'</div><div>부평문화사랑방</div><div>오후 7시 / 무료</div><div>☎505-5995</div></div></div></div></div>		<div>2014 Stage on Screen</div> <div>프레데릭 애쉬튼의 코믹발레 '고집쟁이 딸'</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div> <div>오후 8시</div> <div>무료</div> <div>타루 '판소리, Fun Story!'</div> <div>부평문화사랑방</div> <div>오후 7시 30분 / 3천원</div> <div>☎505-5995</div> <div>23</div> <div>불후의 곡 '전람회그림'</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div> <div>오후 7시 / 전석 1만원</div> <div>☎인음청소년오케스트라 888-8770</div> <div><div>황.금.토.끼</div><div>인천시립무용단 다섯손가락 '모두 함께'</div><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 오후 7시</div><div>무료</div><div>☎420-2051</div></div>		<div>2014 Stage on Screen</div> <div>도니제티의 코믹오페라 '사랑의 묘약'</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div> <div>오후 8시 / 무료</div>

<div>2014. 8. 20 (수) ~ 8. 30 (토)</div> <div>수 · 목 19:30 / 금 · 토 20:00</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무료)</div> <div>2014. 8. 20 (수) ~ 8. 30 (토)</div> <div>수 · 목 19:30 / 금 · 토 20:00</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무료)</div> <div>2014. 8. 20 (수) ~ 8. 30 (토)</div> <div>수 · 목 19:30 / 금 · 토 20:00</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무료)</div>	<div>이달의 展</div> <div>8월 1일~8월 20일</div> <div>여름방학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세계 미술사전'</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div> <div>8월 6일~8월 19일</div> <div>임영주, 또 다른 시선展</div> <div>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div> <div>8월 8일~8월 14일</div> <div>그룹 「1279」 展(서양화)</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div> <div>8월 8일~8월 21일</div> <div>인천개항장의 여제와 오늘 展(서양화)</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div> <div>8월 13일~8월 31일</div> <div>강각현대미술에 묻다</div> <div>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div> <div>8월 22일~8월 28일</div> <div>제10회 인천 서예 전람회 입상자 및 초대작가전(서예)</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div> <div>8월 22일~8월 28일</div> <div>제8회 빛과향기 회원전(서양화)</div> <div>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div> <div>8월 22일~9월 3일</div> <div>김대신, paysage 2014, 황해바람 부는 송도에서 展</div> <div>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div>
--	---



## 사이클로 아시아를 제패하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자전거를 잘 탔던 소년은 이웃에 사는 의사 선생이 왕진을 갈 때마다 자전거 시합을 했다.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의사 선생을 한참 뒤로 따돌릴 만큼 월등한 실력이었다. 자전거 잘 타는 소년을 눈여겨본 의사 선생은 자전거 선수가 되기를 권유했다. 당시만 해도 자전거는 귀했고 인기는 최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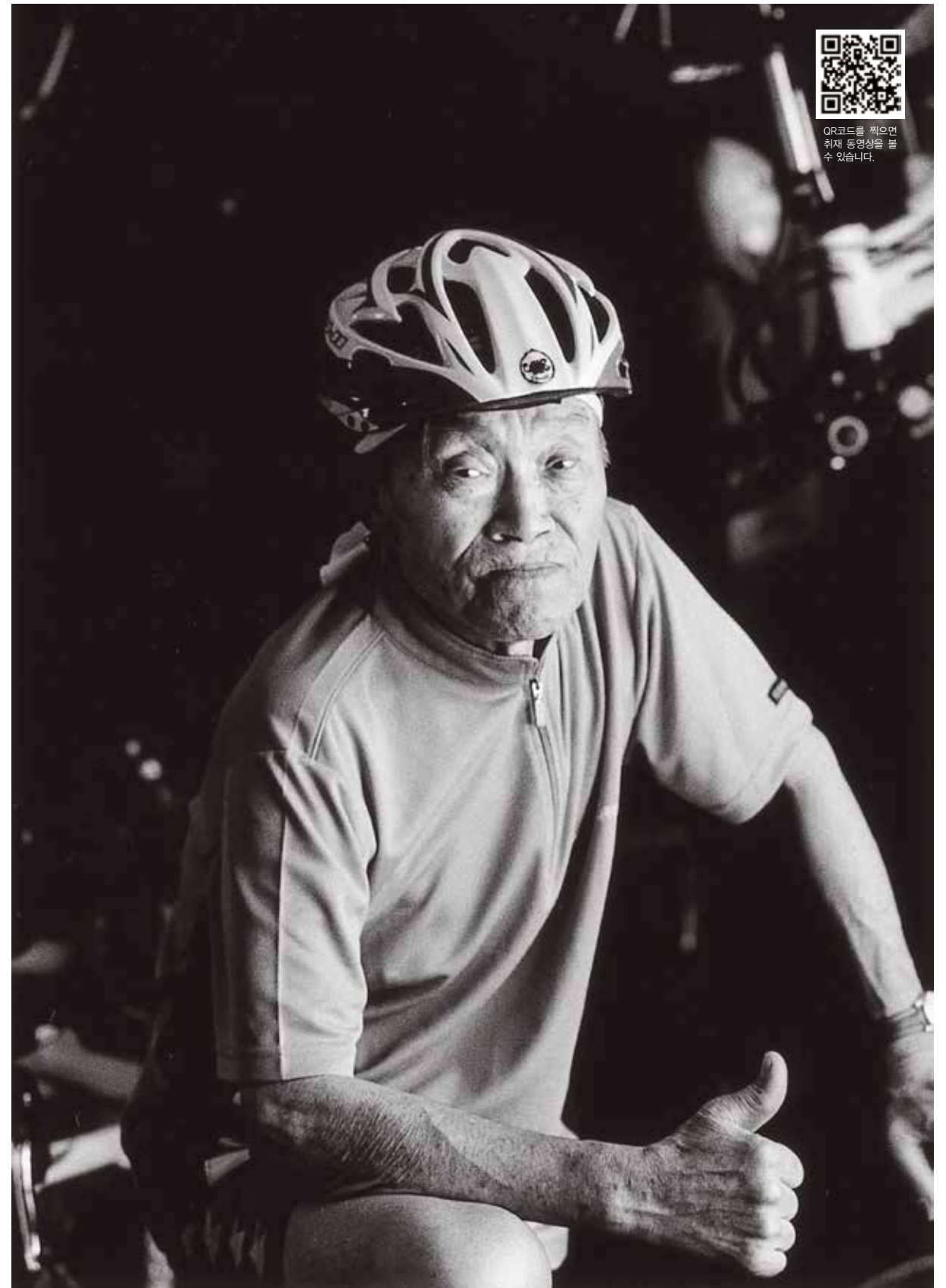
이홍복(80)옹은 17세때부터 사이클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매일 인천운동장에서 연습을 했다. 선배들에게 지도도 받고 어울리며 자전거를 탔다. 그때만 해도 제대로 된 유니폼이 없어서 하의는 양키시장에서 내복을 사다가 염색을 하고, 윗도리는 하얀 러닝셔츠에다 빨간 천을 대서 유니폼으로 만들어 입었다. 비루하고 힘든 선수생활이었다고 회고한다.

사이클 선수가 된 후엔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3천m 신인대회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만 해도 인천 선수들이 서울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면 과거급제 이상의 환대를 받았다. 이후에도 대구일보사 주최, 전국 체전 등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전국적으로 기량을 뽐냈다.

힘든 선수생활이었지만 그는 운동으로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연습을 거르지 않았고, 그 결과 1958년 일본 동경에서 열린 '아세아올림픽'에 대표 선수로 뽑히게 된다.

그는 이 대회에서 1등으로 골인했다. 2위하고 500m 이상 월등하게 앞서는 기록이었다. 전 국민이 환호했다. 그 당시 중계를 맡았던 아나운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대한민국에 감격을 전했다. 같이 참여했던 우리나라의 다른 대표 선수들도 2, 3위를 기록, 모든 메달을 우리나라가 휩쓰는 진기록을 세웠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해, 그는 금메달 2관왕이 되었다. 그가 세계대회와 각종 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내자 각 기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이어졌다. 운동선수로 유명해져,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었지만, 운동선수는 운동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모두 거절했다. 지금도 후회는 없다. 선수생활을 그만 둔 뒤로는 인천 사이클 감독, 전국체육대회 감독, 사이클연맹 전무 이사 등을 맡아 후진양성에 힘썼다. 자신이 직접 선수를 기르며 인천 사이클 발전에 기여했다.

이홍복 옹은 지금도 일요일이면 사이클을 탄다. 집에서부터 월미도~영종도~을왕리까지 60km 거리다. 고령이지만 아시아경기대회 챔피언답게 아직은 거뜰하다. 그는 9월 열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관심 많다. 자신에게 영광을 주었던 대회가 인천에서 열리는 데 무언가 뜨거운 감동과 감격을 느낀다. 그래서 선배 선수로서, 인천 시민으로서, 인천선수들의 파이팅을 외치며, 대회의 성공을 강하게 염원한다.







## News Brief

###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선정… 국비 100억 원 유치

송도·제물포 지역이 2019년까지 소프트웨어(SW) 융합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된다. 우리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한 ‘SW융합클러스터 선정계획’ 공모에 신청한 결과 주관 지자체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유치하게 됐다. SW융합클러스터는 열악한 SW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 지역의 신(新)시장, 신(新)산업,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SW기업이 모인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정부는 SW융합연구개발(R&D), 사업화,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건물, 시설, 설비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

시는 주관 지자체 선정에 따라 송도경제자유구역의 지식서비스산업 허브 구축은 물론, 글로벌 인프라(글로벌 캠퍼스와 국내 대학 등)가 구비된 13km<sup>2</sup> 지역과 청년창업 인프라가 조성된 제물포스마트타운(JST) 12km<sup>2</sup> 지역을 연계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JST의 기존 벤처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SW융합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선발, 창업 기업의 연구 및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송도경제자유구역으로 기업을 이전시켜 글로벌기업 등과 경쟁할 수 있는 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송도미추홀타워에 인천소프트웨어 융합글로벌지원센터



터를 설치해 사업초기 9명의 인력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SW융합진흥단도 만들 계획이다. 시는 향후 5년 동안 글로벌 창업기업 50개사 육성, 신기술 R&D기업 100개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 SW인력 500명 고용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 : 미래창조 경제정책관실 ☎440-3278

### ‘싱글여성홀 안전하게’

우리시는 싱글여성들을 대상으로 싱글여성홀 방법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3일 시큐리티 전문기업인 (주)ADT캡스와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싱글여성홀 방법서비스는 최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1인가구에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우선 강화군 등 군·구에서 저소득 싱글여성 총 20세대를 추천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ADT캡스가 싱글여성 가구에 홀 방법 무선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해당 가구에 외부인 침입시 경보음 발생과 함께 긴급 출동을 통해 상황에 대처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가 위험발생 시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와 긴급 출동으로 24시간 보안을 책임진다.

문의 : 시 여성정책과 ☎440-2758

### 수도요금 감면 대상 늘린다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저소득층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 이달 검침분부터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늘린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만 수도요금 감면혜택 대상이지만, 이날 ‘인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이로써 인천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2만6천가구에서 4만2천가구로 늘었다. 수도요금 할인혜택은 가구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최대 10톤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엔 개정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에는 수도물 절감 시설인 빗물이용설치 수용가구에 대한 요금감면, 재난지역과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정액요금 감면 내용도 포함됐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720-2042

### “안심하고 택배 받으세요~”

우리시는 지난달부터 여성 밀집 주거지역과 범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택배기사를 가장한 성폭행·강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자 마련된 것이다. 서비스 희망 주민들은 택배 수령장소를 ‘안심택배보관함’으로 지정한 뒤 보관함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인증을 받고 나서 택배를 받으면 된다.

안심택배보관함이 시범 설치·운영되는 곳은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해피투게더센터, 동구 송현 1·2동 주민센터, 남구 문학동 주민센터, 연수구 청학동 주민센터, 남동구 만수6동 주민센터, 부평구 부평3동 주민센터, 계양구 계양여성회관, 서구 검단2동 주민센터 등 8곳이다.

문의 : 여성정책과 ☎440-2758



## News Brief

### 국내 최고층 건물이 바뀌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인천에 모습을 드러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달 10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지상 305m(68층) 높이의 동북아무역센터(NEATT Tower) 준공식을 열었다. 2007년 착공한 후 7년 만이다. 이 건물은 현재 국내 최고층인 부산 해운대 위브더제니스(301m)보다 높다.

동북아무역센터는 오피스·호텔 등으로 이뤄졌다. 2~33층엔 기업이 입주할 오피스로 꾸며졌다. 36~37층엔 연회장·레스토랑·회의실 등이, 38~64층엔 레지던스 호텔 ‘오크우드프리미어’(423실)가 들어섰다. 이 호텔은 오는 9월 열리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45개국 대표 임원진과 선수단의 숙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65층에는 송도국제도시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위성항법장치(GPS) 센서가 바람 등에 의한 건물 진동·변위·변형 등을 실시간 감지한다. 총 29대의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까지 이동시간이 1분에 불과하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842



### 소래포구 일대 관광특구 된다

우리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을 포함한 남동구 소래포구 일대를 관광특구로 추진한다. 시는 소래포구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내년 시행하고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1994년 국내 도입된 제도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사업비의 일부를 국비로 받거나 용자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우선 올 하반기 소래철교 경관을 개선하고 소래포구 축제를 개최하며 외국인을 위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방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시설 구축 등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문의 : 시 관광진흥과 ☎440-4042



### 임학가압장 가동 시작

계양구 임학가압장이 시운전을 마치고 지난달 23일 준공 및 통수식과 함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우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 서부지역인 검단, 청라, 영종지역의 개발에 맞춘 수도물 확대 공급과 도수관로 누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임학가압장을 건설했다.

임학가압장 가동으로 일일 최대 434천 톤의 한강물을 공촌정수장에 공급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풍납원수를 사용하게 돼 앞으로 상수도 사업본부 경영 효율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학가압장은 또 한강취수 관로의 수압을 1.5kg/cm<sup>2</sup>가량 낮춰 대규모 누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720-2164





### 한류문화축제 10월 송도에서 열려

인천도시공사는 ‘한류문화축제’를 오는 10월 3일과 4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종합 한류문화 축제로 최정상급 아이돌 공연과 차세대 K-POP 밴드들이 주요 라인업을 이루고 한류스타들의 팬미팅도 마련된다. 이틀간 메인무대에서는 아이돌팀의 미니 콘서트가 진행되고, 서브무대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밴드 공연무대가 함께 진행돼 한국 대중음악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형 축제다. 이번 축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폐막에 맞춰 열려 아시아경기대회를 찾아온 방문객과 선수단 등이 경기 일정 후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장권은 한류문화축제 공식 홈페이지(thekefestival.co.kr) 또는 인터파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차 티켓 오픈때 구입하면 20%의 할인이 적용된다.

문의 : 인천도시공사 ☎260-5342



### 인천시 아동복지관 중구에 새 동지

아동복지관이 남구 송의동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이전, 지난 7월 14일부터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남구 주안동에 있는 아동복지관은 경기장 내 747㎡ 규모의 사무실로 옮겨 가족·놀이·모래·미술치료실, 상담실 3개, 심리검사실, 교육실 등을 갖췄다. 인천시 아동복지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12월 신설됐다. 아동복지관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가족상담, 심리검사·치료, 아동복지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문의 : 아동복지관 ☎434-6436



### 인천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우리시는 제3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보건복지부 주관 출산친화 정책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시는 임신, 출산, 양육 등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든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구의 날은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해 국제연합이 1987년 지정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7월 11일을 국가 기념일인 ‘인구의 날’로 정했다. 한편 시는 지난 12일 인천대공원 야외극장에서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했다.

문의 : 시 보육정책과 ☎440-2753

### 인천 어린이영상페스티벌 9월 개최

‘제5회 인천어린이영상페스티벌’이 오는 9월 26~28일 인천 연수구 문화의 집 아트플러그에서 열린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 영상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꿈꾸는 아이들의 영화놀이’란 주제로 기존의 페스티벌 형식에서 벗어나 영상에 대한 관심과 관객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영상 체험부스와 부대 프로그램들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인천지역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10분 분량의 단편영화를 공모한다. 어린이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영화로 공모작품의 주제 및 형식은 자유다. 공모에 참가한 작품은 페스티벌 기간에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문의 : 인천영상위원회 ☎435-7172

### 폭염대비 독거노인 ‘안전도우미’가 떴다

우리시는 지난달 23일 인천시청에서 관내 노인(독거노인)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 안전도우미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노인 안전도우미 운영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서기 폭염 등에 취약해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전도우미는 매년 6월~9월 폭염대책기간 동안 4개 단체들이 폭염쉼터 운영,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복지도우미,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및 방문 서비스 등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폭염경보 발령 시 각 기관별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현재 시는 독거노인 1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안심폰, 응급안전돌봄, 돌봄기본서비스 등의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 시 노인정책과 ☎440-2815



### 영종대교 곰 조각품 기네스북에 올라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휴게소에 설치된 조각작품 ‘포춘베어(Fortune Bear)’가 세계에서 가장 큰 철재 조각품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포춘베어는 폭 9.7m, 높이 23.57m, 무게 40t 규모로 최근 기네스북에 세계 최고 철재 조각품으로 등재됐다. 포춘베어는 종전 기네스 기록 보유자인 중국 원난성의 현악기 조각품(21.73m)보다 1.84m 더 크다. 장세일 작가가 제작한 포춘베어는 단군신화의 웅녀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인간이 된 어미 곰을 아빠 곰이 아기곰과 함께 그리워하는 스토리를 담았다. 포춘베어의 이름은 행운이란 뜻의 영어 단어 ‘포춘(Fortune)’에서 따왔다. 공항 방문객에게 행운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문의 : 영종대교 휴게소 ☎560-6400



### 인천·서울·경기, 수도권 정책 함께 논의 한다

우리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재난·재해 발생 시 공동 대처하고 대중교통 등 현안을 논의한다.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수도권 정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회는 1년에 두 차례 열린다. 협의회에서는 재해 복구 장비와 인력 지원 등 각종 재난·재해 대비 협력 방안, 대중교통 등 수도권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 자치 조직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채택될 예정이다. 사무국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으며, 의장은 협의회가 열리는 시·도의 장이 맡는다. 1차 협의회는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협의회 산하에는 실무협의체를 뒤서 실무진 간에도 지속적인 소통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 인천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 시 정책기획관실 ☎440-2384



### 영세·중소기업 정보보호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영세·중소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에 문을 열었다. 지난달 22일 남구 경인로 인천IT타워 3층에 문을 연 ‘인천 정보보호 지원센터’는 인천 남동공단과 송도 테크노파크 등지에 있는 17만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점검·기술 지원, 공개 웹보안도구 보급·설치, 정보보호 법률 지원 및 임직원 교육, 대학과 연계한 정보보호 현장인턴십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한편 영세·중소기업은 예산과 인력, 전문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정보보호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2011년에는 전년보다 18%, 지난해에는 31% 증가했다. 지난해 사이버 침해사고로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기업의 87%가 영세·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문의 : 미래창조경제정책관실 ☎440-3278



### Photo News



## 무한질주 꿈꾸는, BMW드라이빙 센터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맘껏 질주하는 자동차. 아무리 달라도 법에 걸리지 않는 곳, 아시아 최초로 문을 연 BMW드라이빙센터는 드라이버의 질주 본능을 해소시켜 주는 스릴 가득한 세계다. 지난달 14일 영종도에 들어선 BMW드라이빙센터는 BMW가 독일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세운 드라이빙센터이자 가족 단위로 전시·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브랜드·드라이빙 복합문화공간으로는 세계 최초다. 축구장 33개를 합친 24만㎡ 면적에 BMW와 독일의 트랙전문업체인 인젠에익스사가 공동 설계한 2.6km 상당의 드라이빙트랙과 전시·체험 공간, 1만2천㎡ 상당의 친환경 체육공원 등을 갖췄다. 차량은 BMW·미니·BMW 모토라드 등 50여 대가 있다. 또 센터의 핵심인 트랙은 다목적·다이나믹·원선회·가속과 제동·핸들링·오프로드 등 총 6개 코스로 구성됐다. 국내 최초로 미끄러운 노면에서 안정적이고 예리한 핸들링을 경험할 수 있는 다이나믹을 도입했고, 오프로드에서는 BMW의 지능형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인 x드라이브(BMW)와 ALL4(미니)를 체험할 수 있다. BMW·미니 고객뿐 아니라 일반 방문객도 사진 예약이나 현장 발권을 통해 차량을 시승할 수 있다. 트랙 이용료는 주중 180분에 10만~22만원이고, 주말 60분은 6만원이다. 운전강사가 10분간 차를 태워주는 ‘M 택시’ 프로그램은 3만원이다. 어린이를 위한 과학 창의교육 프로그램(주니어 캠퍼스), 체험형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키즈 드라이빙 스쿨) 등도 있다.

문의 : BMW드라이빙센터 ☎744-1952





## “인천발전과 시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노경수 의장

노경수 인천광역시의회 제7대 의장은 “임기 동안 의원들과 협력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솔선수범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의장 임기 동안 13조 원의 인천시 부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삭감 새로운 세수증대를 위한 각종 방안 모색 등으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현안 사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깊은 논의와 다각적인 검토로 해결 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할 계획이다.

노 의장은 전반기 의정활동의 방향을 ‘안전’에 두고 있다. 지금 인천에는 인천공항과 항만, 인천대교 등 대규모 시설이 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대형 건설 사업을 지역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기에 안전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9월 개최하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대회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뚜렷하다.

그는 “북한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결정한 것은 대회 흥행과 세계평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많은 시민들이 막힌 남북관계에 물꼬를 틀고 인천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이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북한의 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계기로 남북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평화축전으로 승화되기를 바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

공동응원단 구성부터 백두산 성화채화 등 대회 진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일에 시의회가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할 계획이다.

노 의장은 모든 시의원은 인천의 발전만을 생각하고 인천시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봉사과 신의를 지키는 길만이 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거듭난다는 믿음 때문이다.

3선의 시의회 의정경험을 갖고 있는 노경수 의장. 300만 시민이 그에게 거는 기대는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줄 것과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것이다.



박승희 제1부의장

## “원도심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펼치겠습니다”

박승희 제1부의장은 구의원 시절부터 3선의 시의회 의정활동을 이으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 비가오가 눈이오나 가정초등학교 앞에 가면 새벽 교통캠페인을 펴는 그를 볼 수 있다. 교통사고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시작한 것이 20년이 넘었다.

박 의원은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선소감은 “300만 시민의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일성이다.

박 부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둘 생각이다.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인식하에 중장년 명퇴자,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또 원도심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박 부의장의 지역구 역시 원도심이기에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도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 부의장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로 인천의 위상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렸던 국내 다른 도시보다 더 훌륭한 대회로 치러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시의회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용범 제2부의장

## “열린 귀로 작은 소리도 잘 들겠습니다”

이용범 제2부의장은 재선 의원이다. 그는 제2부의장에 당선된 소감을 “현장중심 의회,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7대 의회 의원들이 아시아경기대회 각 경기장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현장을 함께 돌아보며 인천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한다.

이 부의장은 조선이었던 지난 6대 의회 내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했다.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 경비도 절감되기 때문에 일석이조라는 것. 그는 제6대 의회 때 100% 상임위 출석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제7대 의회에서 이런 노력을 계속 기울일 계획이다.

이 부의장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에 있어 의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60여 일 밖에 안남았기에 준비과정을 의회가 솔선수범해 체크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의장은 “시민들이 요즘 많이 힘들다.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좋은 모습, 인천을 잘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민들도 많이 힘을 낼 것 같다.”며 앞으로 활기찬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심에 서서 일하겠다는 각오다.





## 저울눈 속여 먹던

### 악질 상인 5명 적발

6·25 전쟁이 끝난 후 상흔이 아물면서 시 행정도 급속히 안정을 찾아갔다. 인천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시 정책과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1953년(단기 4286년)부터 1961년까지 ‘인천공보(仁川公報)’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했다. 어찌 보면 본지 ‘굿모닝인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문을 보면 그 시절의 시 정책은 물론 인천의 사회상과 시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인천공보’의 기사를 될 수 있으면 원문 그대로 발췌하되 이해하기 힘든 단어나 문장은 현재 어법에 맞게 고쳐서 매월 이 지면에 게재한다.

정리 유동현 본지편집장

#### 저울눈 속인 자 엄벌

인천시 상공과에서는 일반 상품거래에 공정과 명랑화를 도모할 견지에서 수시로 도량형기에 대한 제 2종 취체(단속)를 실시하고 있어 저울눈을 속여 먹던 악질 상인 5명을 적발하였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기물을 현장에서 압수하는 동시에 본인에 대한 문초도 일단락을 지어 8월 6일 검찰 당국에 고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고발된 악질 상인들은 금은상(金銀商)이 3건, 식육상이 1건, 고물상이 1건이라고 하며 위반 상황을 보면 금은상은 저울추 밑을 갈아 저울눈을 속여먹는 등 부정 형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1953년 8월 12일자)

#### 무허가 이발업자 경찰에 고발

인천시 보건과에서는 지난번 시내 전역에 걸쳐 무허가 이발업자를 일제히 취체(단속)하고 무허가 업자 6명을 적발하였다. 이들은 공공연하게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계속함으로 수차에 걸쳐 자진 폐지를 종용하여 왔으나 하등 순응하는 기색이 없어 시 당국에서는 이들에 대하여 철정한 단속을 하고자 경동 118번지 기흥이발관(주인 장흥길) 외 5명을 경찰 당국에 고발하였다고 한다.(1953년 8월 19일자)



전자저울이 일상화되기 전까지는 저울 눈금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사진은 1960년대 초 곡물 배급 장면으로 기사와 관계 없음)

#### 시영 영구차(靈樞車) 운행

그동안 수리 중이었던 시영 영구차가 금번 수리를 끝마쳤다는 바 사용코저 하는 자는 시 사회과 구호계에 연락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1953년 8월 19일자)

#### 매음부 일제 취체(단속)

지난 1일 밤 인천시에서는 시내 북성동 향동 신생동에 산재하여 유엔군을 상대로 하는 매음부들을 일제 단속하여 19명을 적발해 검진을 마친 후 치재(치안재판)에 회부하였다.(1955년 8월 8일자)

#### 지하도 설치 반대 진정 일촉

중앙시장으로부터 동인천역(축현역)을 직통할 수 있는 지하도를 설치한다는 설이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 인천동에 거주하는 주민 장인식 외 919명으로부터 동 지하도 설치에 적극 반대하니 선처해 달라는 청원서를 인천 시의장에 제출하였다. 지난 26일 개최된 내무위원회에서 동 청원서를 심의 한 바 동 지하도 설치는 30만 인천 시민을 위해서 커다란 도움이 됨은 물론 대인천시 발전을 위해서도 타당한 계획인데 이를 소수의 청원 시민들을 위해 이 중대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항도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하도를 관통할 수 있게 추진한다 한다.(1955년 8월 29일)

#### 빙과설 제조요령 시달

여름철을 맞이하여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여 만연의 우려가 극히 우려되는 이때 요즈음 항간에는 공중 위생국민을 역행하고 영리에 눈이 어두워 위생 관념을 등한시하고 시설의 불비, 원자료의 불선정, 비위생적인 제조 및 제품 등이 시내에 범람하고 있어 인천시 보건과에서는 상부 지시에 의거하여 관할 각 빙과설(氷菓雪)업자에 위생 시설의 질적 향상과 제품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요강을 엄중 시달하였다고 한다.

(1956년 8월 15일자)

#### 광목(廣木)을 찾아가시오

6·25 동란 후 실종된 군인 가족에게 지난해 5월부터 위문용 광목을 지급하고 있다. 아직까지 미수령자가 허다함으로 인천시에서는 동 누락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오는 9월 말일까지 현품을 지급하리라 한다. ①실종통지서 소지자로서 실종자 명부에 누락된 자 ②군번 병적 착오로 미지급자 ③주소 불명 및 이동자 ④알지 못하였든가 또는 문맹으로서 수속에 누락된 자 등 동 기간 중에 빠짐없이 지급 받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고 한다.(1956년 8월 22일)

#### 시민의 노래 입선작

인천시에서는 지난번 ‘시민의 노래’ 가사 현상 모집을 한 바 있었는데 응모 건수 20여 건을 심사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심사 한 후 지난 25일 상오 10시부터 가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를 상정하여 입선 작품을 결정하였다. 이번 입선 작품 중에는 당선작은 한 편도 없고 가작 3편만이 입선되었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당선작이 없으므로 추후 문화위원회 예술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회의에서 적임자에 위촉하여 작사키로 결정을 보았다. 가작에 입선된 분은 이수용(율목동), 김양수(주간 인천사), 임진수(박물관) 씨다.

〈가작〉 이수용

1.반만년 역사를 이어 온 이 땅 / 백두산 정기를 타고난 우리 / 제물포 품 안에 모이고 뭉쳐 / 민주의 기둥 된 인천의 시민 2.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며 보와 상조로 열키인 우리 / 건설도 재건도 내일로 알고 / 힘차게 일하는 인천의 시민 3.저 바닷물 같이 넓고 큰 마음 / 의리에 살자고 맹서한 우리 / 나라일 고장일 제 먼저 나와 / 실천에 옮기는 인천의 시민

〈가작〉 김양수

1. 황해의 줄기 찬 물결을 안고 / 역사 찬란히 구비쳐 온 / 아세아 한복판의 건설의 터전 / 언제나 햇불처럼 빛나고 있네 (후렴) 세우세 키우세 우리의 인천 내일의 벽찬 희망을 위해 2. 우렁찬 부두의 뱃고동 소리 / 높이 올리는 함마(햄머) 소리 / 흐르는 용광로의 쇳물과 같이 / 다함께 한데 뭉쳐 싸우고 있네 3. 믿었고 든든한 새나라 일꾼 / 기리 도웁고 사랑하여 / 군세게 발맞추어 전진해 가는 민족의 자랑스런 시민이라네

(1955년 8월 29일)







### 광복절 경축행사 가족과 함께 참여하세요

인천시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광복행사를 개최한다. 기념식 및 시립교향악단의 콘서트, 시민 참여행사 등 다양한 경축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일시 : 8월 15일(금) 10:00

장소 :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및 야외광장 일원

참여자 특징 : 지정구역 우선입장, 초·중·고교 학생 자원봉사 기회 부여

역할 : 행사참여 및 행사종료 후 식장정리

문의 : 440-2503

### 인천향토사강좌 개최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제67회 인천향토사강좌'를 개최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시간 : 8월 4일(월) 14:00~15:30

장소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사랑방(40석 내외)

※ 중구청 뒤 자유공원 아래에 위치

주제 : 체육사로 보는 인천(14:00~15:30)

문의 : 440-8382~3, 773-3498

### 2014 인천APG 수송 운전원 모집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대회 운전을 담당할 수송요원을 모집한다.

공고기간 : 7월 23일~8월 6일 (15일간)

모집기간 : 7월 28일~8월 6일(10일간)

모집인원 : 73명 (1종보통면허 60명 ⇒ 주간 58명, 야간 2명)  
(1종대형면허 13명 ⇒ 주간 9명, 야간 4명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연령이 만 26세 이상인 자 / 1종보통면허 또는 1종대형 면허증을 보유한 5년 이상 운전경력자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무사고 경력자

문의 : 458-5302~6

### 김규식사진전 ‘A Man’

사진공간 배다리에서는 김규식 작가의 사진전 ‘A Man’을 개최한다.

일시 : 8월 22일~9월 3일

장소 : 사진공간 배다리

문의 : 070-4142-0897

### 인천 협동조합을 소개합니다



##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

‘꿈꾸는 문화놀이터 뜻’은 청년 예술인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서로의 재능을 모아서 동네 중심의 문화공동체를 만들고자 2013년에 설립했다.

‘뜻’의 정윤희 대표는 “꿈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이루는,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미로 지었다.”고 소개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 대표는 “2006년 연극, B-boy, 노래 등 공연영역에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 한 명이었는데, 당시에는 지역 안에서 청소년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청소년 단체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한다. 당시 인천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 동아리연합회가 막 생겼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광기의 도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광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발 딛고 있는 상황에서부터 고민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고 말한다.

고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객은 누구인가?’를 묻게 되었다. 예술을 함께 누릴 대상은 바로 마을 주민이었다. 축제를 통해서 진지하게 주민을 만나겠노라 마음먹었고, 그런 의미로 만수동의 지역축제 시민문화기획단을 시작했다.

이후 ‘대학생 + 주민 놀이터’의 이미지를 가진 법인을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안전행정부가 선정한 남동구 마을기업이 되었다. 또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인 ‘만수동오리지널’을 기획하기도 했다.

앞으로 계획은 판매 콘텐츠를 구상해서 마을 주민 모두가 주주가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모두 즐거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다.



#### 모닝커피 한잔

## 스마트 독립군 ‘인천N방송’

글 장우식 인천N방송 센터장

지하철을 타면 스마트폰의 위력을 새삼 느낀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귀에 이어폰을 꽂고 무언가를 듣고 있다. 스마트폰은 이제 현대 인류의 필수품을 넘어 거의 신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서울의 그늘에 가려 대표적인 공중파방송 하나 없는 인천은 방송미디어를 통한 시민들의 소통과 지역여론의 활성화가 고질적인 숙제였다. 결국 인천시는 지난 2012년 미래창조과학부의 국비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SNS 시민소통형 방송통신 융합시스템인 ‘인천N방송’을 구축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는 인천N방송에는 인천시와 각 시·군·구, 시 산하기관은 물론 대학과 지역신문사, 방송사까지 모두 80개에 달하는 채널들이 활발히 방송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영상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 생중계하거나 무료로 방송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 방송통신 융합의 시범케이스로 인천에서 처음 출발한 인천N방송을, 서울 등 다른 도시로 확대해 전국의 광역도시들을 하나로 묶는 ‘한국N방송’을 올해 안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제 문제는 인천N방송을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가’다. 출장 차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인들이 야후나 구글 같은 세계적인 포털사이트보다 ‘바이두’ 같은 자신들의 포털을 애용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네이버’가 여전히 검색포털 1위이고

‘아래 한글’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겨냈다.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1위의 다국적 동영상사이트는 한국에서 올린 동영상을 활용해 적게는 수 만 건에서 수십 만 건의 조회 수를 자랑하며 사업적 이득을 창출하고 있다. 사이트 어디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나 여론은 깃들여있지 않는데도 우리는 오늘도 습관적으로 이 사이트를 둘러보고 동영상을 올리곤 한다. 지금 인천N방송은 마치 중국 상해 뒷골목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있는 초라한 김구 선생의 침대를 연상케 한다.

화려하지도 않고 찾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지금 인천N방송은 미래를 꿈꾼다. 인천시민들이 인천N방송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여론을 모아 인천의 미래를 그려가는 날을, 그리고 한국N방송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을 모아 다국적 영상사이트의 조회 수를 증가하는 바로 그 날을.

####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내소원은 우리만의 철학이 있는 나라, 자주독립문화의 힘을 지닌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오’. –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가운데

인천과 깊은 인연이 있는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를 통해 한 나라나 도시는 그들만의 철학과 문화를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 된 인천의 발전을 위해 인천N방송 관계자들은 오늘도 방송제작에 힘쓰고 있다. 인천N방송은 인터넷 www.incheonNtv.com이나 스마트폰 앱 검색에서 ‘인천N방송’을 다운받아 실현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다.



추천도서 목록			
서 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이미지 인문학, 1	진중권	천년의상상	현실과 가상이 중첩하는 파타피직스의 세계
(톨스토이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레프 톨스토이	책만드는집	톨스토이의 사색을 담고 있는 금언집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생부자	윤은모	전나무숲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면 당신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심플리스트	장성규	리더스북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하는 인재
브레인 트러스트	가스 섀넌	진성북스	당신의 색다른 삶을 위한 지식의 향연
세상을 바꾼 작은 우연들	마리 노엘 샤를	월컴퍼니	우연히 탄생한 세기의 발명품 50가지 이야기
상처 주는 것도 습관이다	이임숙	카시오페아	불안과 결핍을 성장과 치유로 바꾸는 엄마의 마음멘토링
음악이 아이에게 말을 걸다	김대진	웅진리빙하우스	스스로 성장하는 아이로 키우는 음악 속 숨은 감성 찾기
보카 콘서트	김정균	두앤비컨텐츠	세상을 보여주는 포토 영단어, 어원 이야기
인천에 살기 위하여	신현수	다인아트	신현수 시집
삶은 어떻게 책이 되는가	임승수	한빛비즈	책을 쓰는 사람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
꼭삭 속았수다	성우제	강	성우제의 제주올레 완주기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6

##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시인 **한상억**  
(1915~1992)

강화출생으로 1935년 인천상업을 졸업했다. 1956년 ‘자유문학’에 시 ‘네거리에서’로 추천을 받고 시단에 알려졌다. 1961년 첫 시집 ‘평행선의 대결’이 출간되었으며 1976년 제2시집 ‘창변의 사유’가 간행됐다.

첫 시집 ‘평행선의 대결’속에 들어있는 시편들은 그가 불혹까지 살며 겪어온 그의 경험들을 토대로 읊어진 시어로 인생과 사회를 생활인의 처지에서 저울질하고 실망하고 냉소하며 외쳐 된 시들이다.

제2시집 ‘창변의 사유’는 먼저 보다는 훨씬 체념적이고 사유의 자세로 가라앉고 있다. 전통적인 것에 대한 향수와 재래적인 생활관속에서 차라리 구원의 길을 지키려는 호흡을 보이고 있다. 인천을 지킨 지방 시인이다.

###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레프 톨스토이 | 책만드는집 | 2014

살아가면서 누구나 그 본질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행복, 욕망, 시련 등 12가지 인생의 요소에 대한 톨스토이의 사색을 담은 금언집이다. 말년에 문학보다 종교나 철학 등 사상에 심취했던 톨스토이는 민중을 계몽하고자 자신의 성찰의 결과물인 이 책을 간행했다.

### 심플리스트

장성규 | 리더스북 | 2014

심플리스트의 삶을 지향하면서 스스로 심플리스트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평범한 직장인 장성규가 업무의 본질을 흐리고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조직과 일상의 문제를 날카롭게 짚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심플리스트’가 될 것을 제안한다. 폐단 속에서도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해 내는 이들의 성공 사례를 통해 그들만의 마인드와 노하우를 여섯 가지 육감의 원칙으로 풀어냈다.

### 인천에 살기 위하여

신현수 | 다인아트 | 2014

신현수 시집. 전체 4부로 구성되어 ‘밥벌이의 지겹지 않음’, ‘사랑은 얼마나 견디는가’, ‘지용택 이사장님의 법어’, ‘팔공오칠’, ‘너를 지킬 수 있을까’, ‘다시 쓰는 교육일기’, ‘울릉도는 외출 중’, ‘미국서부 시편’ 등의 시편이 수록되어 있다.

### 음악이 아이에게 말을 걸다

김대진 | 웅진리빙하우스 | 2014

아이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힘을 음악 속에서 찾는 음악 교육서다.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산만한 아이, 공격성을 띄거나 소심한 아이들의 해결방법을 음악으로 치유하고자 한다. 이 책은 아이를 변화시키는 음악의 무한한 잠재력을 소개하고, 음악 안에서 찾은 교육 방법을 통해 음악적,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제시한다. 저자는 음악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아이들을 위한 음악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 Good Morning



### 45

2014 Great Asia 로(路)드

사막에 핀 황금빛 꽃 두바이를 가다

### 49

에티켓

공연 예절

### 50

2014 인천AG

입장권 및 기념주화 구매

### 54

나라별 풍습으로 알아보는 아시아

캄보디아

### 56

하나되는 아시아

‘노을을 향한 손짓’ 외

### 58

Asiad News

‘강릉 찍고 부산까지~ 인천AG 홍보’ 외

총 45개국, 1만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 축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번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굿모닝인천’이 더 큰 세상을 책에 담았습니다. 글로벌 인천에 걸맞은 글로벌 ‘굿모닝인천’의 글로벌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 사막에 핀 황금빛 꽃 두바이를 가다

두바이에 도착하기 이틀 전 기온이 섭씨 53도를 기록 했었다는 택시기사의 말을 들으면서 과연 이곳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었다. 두바이의 호텔에 도착해 택시 문을 여는 순간 그런 기우는 현실이 되는 듯 했다. 습도와 열기를 잔뜩 머금은 상상 그 이상의 공기가 순간 숨을 막아버린다. 그래서야 내가 두바이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글 · 사진 김성환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연방은 일곱 개의 토후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다. 그리고 그 중 UAE(아랍 에미리트)를 대표하는 연방이 바로 두바이(Dubai)다. 두바이는 과거 페르시아해로 이어져 있는 소금기 가득한 작은 어촌에 어부와 상인들이 웅기종기 모여 살던 작은 마을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소박하고 평온한 삶은 1966년 석유가 발견되면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일달러가 넘쳐나면서 두바이는 사막에 핀 기적의 꽃답게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언젠가는 고갈될 한정적인 석유자원에 의지하기보다 전 세계 사람들이 레저와 휴식, 관광을 위해 찾는 관광대국의 꿈을 사막에 꽃 피우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는 이제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두바이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거대한 야자수 모양의 '팜 아일랜드(Palm Islands)'는 야자수 모양으로 바다에 떠 있는 100개의 럭셔리 호텔, 프라이빗 비치, 워터 파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대한 인공 휴양 도시로 전 세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더 월드(The World)' 프로젝트는 세계지도 모양을 한 300여 개의 섬을 전 세계의 갑부들에게 분양하는데 성공했다.

1995년부터 시작된 이 기적 같은 변화는 셰이크 모하메드가 왕세자가 되어 CEO 겸 통치자로서의 실권을 얻게 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는 언젠가는 고갈될 석유자원에 의지해 두바이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규모의 최첨단 미래도시를 건설해 두바이를 세계적인 관광 대국으로 만들고자 했다.

### 두바이 박물관에서 만나는 두바이의 지혜

두바이 사람들은 전기도 에어컨도 오일달러도 없던 과거, 오직 지혜만으로 뜨거운 태양과 사나운 모래사막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켰다. 두바이 박물관에는 두바이의 과







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관과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두바이 구시가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바람의 탑(Malqaf)이 어떻게 이 뜨거운 섭씨 50도의 도시를 식혀왔는지도 알 수 있다. 뜨거운 공기는 도시 곳곳에 있는 바람의 탑 윗부분에 걸려 탑 아래로 꺾여 내려오고, 그 밑에 파놓은 도랑에서 차가운 땅과 물을 만난다. 그렇게 식은 공기는 다시 위로 올라가 두꺼운 세라믹으로 뒤덮인 건물 내부로 들어가 천연에어컨 역할을 했다. 두바이 시민들이 석유 없이 만들어낸 이 기적은 두바이 박물관 내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금과 향료와 모든 것 다 있는 시장 ‘크리크’

두바이의 살아있는 과거를 보려면 크리크 주변으로 가야한다. 특히 동쪽의 데이라(Deira) 지역의 꼬불꼬불한 시장들은 아랍의 옛 거리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 신기하게 이방인을 맞이한다. 아라비아인들은 무엇이든 가져다 놓고 파는 이곳을 수크(Souq)라고 부르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골드 수크’다. 125개가 넘는 가게들이 온갖 귀금속을 팔고 있다. 또한 골드수

**i**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현지 홍보차 해외PR 로드쇼를 지난 2013년 6월 2일 두바이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직위는 2010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승마 은메달리스트이자 두바이 공주인 셰이카 라피타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현지 홍보대사로 임명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조직위는 2014 비전프로그램의 취지를 담아 UAE 유소년 스포츠발전을 위한 스포츠발전기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인천시를 대표하는 인천시립무용단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경교춤과 기원무 등의 공연을 현지에서 선보이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조직위는 두바이 로드쇼에 이어,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및 중국에서 차례로 해외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크을 지나면 이국적인 향기로 가득한 향료와 향수 가게들이 즐비한 수크를 만난다. 이쯤 지나다 보면 습기와 고온에 지쳐서 더 이상 돌아보기 힘들어 진다. 시원한 가게에 들러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더위에 달궈진 몸을 잠시 식히는 지혜도 필요하다.

#### 사막 속에서 눈과 아이스링크를 즐긴다

낮에 두바이 거리를 걷는 사람은 없다. 낮선 외국인들과 뜨거운 거리를 질주하는 값비싼 고급 외제차들은 예외다. 그러나 백화점과 쇼핑몰의 내부로 들어가면 마치 실내에서만 살아가는 다른 행성의 외계인처럼 사람들이 바글거린다.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피해 실내로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두바이만의 마케팅이 잘 접목된 결과라는 생각도 든다. 백화점과 대형몰은 물론 두바이 사람들은 건물 안에 그들의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어 버렸다. 지난 2006년에 오픈한 ‘스키 두바이(Ski Dubai)’가 그런 곳 중 하나다. 이곳은 85m 높이의 인공 산 밑으로 5개의 미끈한 슬로프를 자랑한다.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면 외부에서 건물의 끝까지 다 보기 힘들 정도로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기록되고 있는 버즈 칼리파(Burj Khalifa)는 역사상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 가장 높은 828m의 바벨탑이다. 이 탑은 한국 기업이 주도한 프로젝트로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두바이의 가장 뛰어난 상징물로 버즈 칼리파 보다 ‘버즈 알 아랍(Burj Al Arab)’을 꼽는다. 하나의 거대한 돛대를 보는 듯한 이 호텔은 7성급이라는 비공식 레벨까지 만들어낸 최고급 호텔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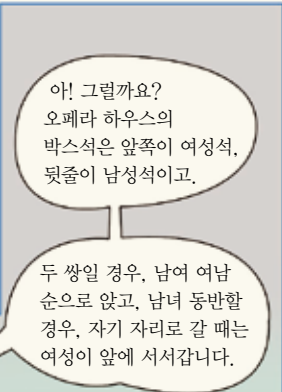




오늘날 두바이는 중동과 페르시아만 지역의 문화 중심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대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화물과 여객 교통의 중심지이며 석유 산업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관광, 항공, 부동산, 금융 서비스 등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 두바이는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22위에 올라 중동 지역 도시에서는 최고 순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두바이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자주 선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수치를 떠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꿈꾸는 그들의 도전 정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림. 유환석





## 단언컨대, 인천AG 놓치면 ‘후회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다.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12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역사적인 아시아경기대회. 북한을 비롯해 45개 OCA 회원국이 모두 참가하는 퍼펙트 대회.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서두르자. 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 발권센터가 문을 열고 지금 개막식 티켓을 비롯한 입장권 판매가 한창이다.

글 정경숙 본지면집원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 한국 스포츠 역사 한가운데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45억 아시아인을 하나로 이을 축제가 인천에서 열린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12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역사적인 아시아경기대회다. 우리시는 2005년 정부의 승인을 거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대회 유치 신청을 한 후 2년간의 유치 활동 끝에, 지난 2007년 인도 뉴델리를 제치고 대회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경기대회가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그 역사를 시작한 이래 17회째를 맞는다.

### 북한과 한마음으로 응원해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45개 OCA 회원국이 모두 참가하는 퍼펙트 대회다. 올림픽 종목 28개와 비 올림픽 종목 8개 등 총 36개 종목에서 모두 439개 금메달을 두고 1만 4천여 명의 선수들이 선의의 승부를 가른다. 36개 종목은 수영, 양궁, 육상, 배드민턴, 야구, 농구, 근대5종, 조정, 럭비, 요트, 세팍타크로, 사격, 스쿼시, 탁구, 태권도, 테니스, 카바디, 공수도 등이다.

이번 대회는 특히 마지막까지 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북한이 최종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은 이번 대회에 14개 종목 150명의 선수단과 150명의 임원과 응원단을 보낸다고 OCA에 통보했다.

### 다시 오지 않을 '9월 19일 오후 6시'

‘공연시간 2시간 30분, 투자액 200억, 참가인원 3천 800여 명’,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그 가운데서도 개막식은 대회의 하이라이트 중의 하이라이트. 흔히 볼 수 없는 세계적인 규모의 이벤트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개막식은 ‘45억의 꿈, 하나 되는 아시아’를 주제로, 거장 임권택이 총감독을 장진 감독이 총연출을 맡아 한국의 정서가 흐르는 환상적인 무대로 펼친다. 세계적인 한류스타의 콘서트와 국악인 안숙선, 성악가 최현수,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오닐, 첼리스트 송영훈 등의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또 국기 및 대회기 입장, 선수대표 선서, 성화 봉송 및 점화 등을 통해 한국을 빛내는 스포츠 스타들을 만날 수 있다.

개막식은 기존에 열린 그 어떤 대회에서도 보지 못한 볼거리를 쏟아내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세계에 알리고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것이다. 2014년 9월 19일 오후 6시를 기억하자. 45억 아시아인을 열정과 환희로 잇는 빅 이벤트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인생일대 단 한 번의 기회다.





# 인천 AG, 입장권 예매 ‘선택 아닌 필수’

서두르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 발권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입장권 발매가 한창이다. 온라인 그리고 현장에서 입장권 예매부터 수령에 이르기까지, 대회 입장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티켓 예매 사이트

www.okticket.com/html/ag/html/index.html

입장권 판매처

콜센터 1599-4290  
인터넷 ticket.incheon2014ag.org  
모바일 mticket.incheon2014ag.org  
경기 당일 각 경기장 현장매표소

2014인천AG 개·폐회식 입장권 가격 (단위:원)

구분	등급	개회식	폐회식	장소	날짜
개회식 폐회식	VIP	1,000,000	600,000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개회식 9월 19일(금) 18:00
	PREMIUM	700,000	500,000		폐회식 10월 4일(토) 18:00
	1	500,000	300,000		
	2	250,000	200,000		
	3	100,000	100,000		

입장권 할인 정책 (단위:%)

구분	유공자 장애인 경 로	초·중·고생			다문화 가족 (3인)	일반단체 (50인)
		개인	가족동반 (3인)	단체 (50인)		
할인율	50	40	50	70	50	30

경기종목별 입장권 가격 [www.incheon2014.kr/news/ticket/index](http://www.incheon2014.kr/news/ticket/index)

예매취소 가능일

개·폐회식 입장권 : 예매 시 ~ 개·폐회식 10일 전까지  
경기 입장권 : 예매 시 ~ 경기 전일 17:00까지  
※ 단체예매의 경우 취소 환불 불가 원칙

취소수수료

예매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전액 환불되며, 그 이후에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10~20%) 부과  
※ 단, 경기일 7일 이내에 티켓을 예매하는 경우 다음 날부터 부과

NAVER

아시안게임 입장권

검색

인터넷 창에 '아시안게임 입장권'을 검색하세요.



# 현빈도 소장한, 기념주화 간직하세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영광을 마음 깊이 새기는 하나의 방법은 기념주화를 간직하는 것. 한류 스타이자 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인 배우 현빈이 기념주화 세트 1호 구매자로 선정돼 화제를 모은 가운데, 마린보이 박태환, 동계스포츠 간판스타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상화와 박승희 등도 기념주화 세트를 구매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념주화는 디자인과 제조 기술이 역대 기념주화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는 평이다. 특히 금·은화는 국제경기대회 기념주화 사상 세계 최초로 보는 방향에 따라 햇빛 방향이 달라 보이는 잠상기법을 적용했다. 또한 금·황동화의 테두리 측면에 'Incheon·Korea·2014'를 각인해 특별함을 더하고, 황동화에는 이번 대회 마스코트인 점박이 물범 삼 남매와 비 올림픽 8개 종목(볼링·야구·공수도·카바디·세팍타크로·우슈·스쿼시·크리켓)의 픽토그램을 반영했다.

기념주화는 모두 6종으로 금화 2만원화(31.10g), 금화 1만5천원화(10.36g), 은화 1만원화(31.10g), 은화 5천원화 2종(각 15.55g), 황동화 1천원화(26g)다. 특히 금화 2만원화(31.10g)는 우리나라 역대 기념주화 중 최소 수량인 3천개만 발행하고, 10.36g의 금화 1만5천원화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행해 의미를 더 했다.

**구매방법**  
풍산화동양행([www.hwadong.com](http://www.hwadong.com) 02-3471-4586~7)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실시간 주문이 가능하다. 배송은 9월 16일 이후부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기념주화 [www.incheon2014coins.kr](http://www.incheon2014coins.kr)



## 인천AG 아로새기기

**1 주경기장 관람석에 내 이름 새기기**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경기장 관람석에 내 이름을 남기자. '관람석 이름깎기'는 박태환수영장,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열우물테니스경기장 등 경기장 3곳의 관람석에 시민(단체·법인)들의 이름과 응원문구(15자 이내)를 부착해 주는 기념사업. 이름 깎기의 1구좌 금액은 개인 2만원, 단체·법인 20만원으로 조직위 홈페이지([www.incheon2014.kr](http://www.incheon2014.kr)) 또는 기념사업팀(458-2490)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 AG 기념품 사고, JYJ와 사진도 찍고**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복합쇼핑몰 스퀘어원 3층으로 가면, 아시아경기대회의 마스코트 물범 삼 형제 '비추온', '바라메', '추모로'를 만날 수 있다. 아시아경기대회 공식기념품점인 이곳에선 대회 마스코트와 로고를 모티브로 한 소장가치 있는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인형, 티셔츠, 모자, 배지, 머그컵, 우산 등 그 종류만 해도 200여 종에 이른다. 또 손연재, 양학선 등 스포츠 스타와 대회 주제가를 부른 그룹 JYJ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있어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스퀘어원 [square1.co.kr](http://square1.co.kr), 456-4000







## 캄보디아

## 서민생활과 밀접한 불교문화



글. 와잉(31, 캄보디아)



제가 태어나서 24살까지 자란 곳은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관광지 ‘앙코르와트’에서 약 5시간 떨어진 작은 시골마을입니다. 요즘은 한국이 여름 방학기간이라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데 아직 여행지를 결정하지 않은 분을 위해 캄보디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얼마 후에 인천에서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데 저는 조국 캄보디아 선수단의 선전을 위해 친구들과 응원을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가 깊숙이 자리한 캄보디아는 종교를 넘어 서민 생활에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의 사원에서 공양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해마다 불교 관련 행사가 다양하게 열립니다. 불교사원에서는 모자와 신발을 꼭 벗어야 하며, 불교사원에 들어갈 때에는 반바지를 입으면 예의에 어긋난다며 금기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매우 겸손하며, 젊은 사람은 어른을 공경하고 여자는 남자를 따르는 등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의 예의범절과 비슷

합니다. 앉을 때는 발을 잘 보이지 않게 해야 하며, 머리는 신성한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건드리는 것이 큰 실례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장자의 머리를 만지는 행위는 그를 경멸한다는 뜻이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 승려의 몸을 건드려서는 안 되며, 승려에게 시주를 할 때도 시주할 물건을 잘 보이게 두고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또 캄보디아 사람들은 사진을 찍을 때 사람 수가 홀수이면 한 사람이 죽는다는 미신을 믿어 홀수로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그 외 캄보디아의 재미있는 풍습은 앉아 있는 사람의 무릎을 넘어가거나, 여성들이 휘파람을 불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때 여성은 반드시 다리를 가지런하게 모아서 옆으로 타야합니다. 좁은 길에 두 대의 차량이 만나

면 대형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작은 차가 양보해야만 합니다. 또 음식 값을 지불할 때 여러 명이 나눠서 내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며, 초청한 사람이 음식 값을 모두 지불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주로 밥과 국수류를 먹습니다.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음식 또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서 이들 나라와 비슷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수는 ‘꾸이띠우’라 부르는 쌀국수와 ‘미’라고 부르는 계란으로 반죽한 국수가 있는데, 아주 맛이 좋아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덮밥과 쌀국수를 많이 먹고, 점심은 간단한 요리를, 저녁은 푸짐하게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전통음식 가운데 대표적 음식인 ‘아목’은 카레소스를 베이스로 한 찜요리로,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생선,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채소 등 재료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아목을 만들어 먹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10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 당시 태권도, 레슬링, 복싱, 수영, 육상 등 8개 종목에 22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았습디다. 하지만 이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캄보디아 가 꼭 메달을 획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 모두는 대한민국과 나의 조국 캄보디아의 선전을 위해 경기장을 찾아 열심히 응원을 할 예정입니다.

### 아목(A-Mok)

아목은 민물고기인 잉어 살을 갈거나 사각으로 썰어 캄보디아 고유 양념인 Greung과 코코넛 밀크를 섞은 후 바나나 잎에 싸서 찐는 요리입니다. 코코넛 밀크 때문에 부드럽고 담백하지만 후추의 매콤한 향 덕분에 민물고기의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전혀 느끼하지도 않습니다. 캄보디아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대중화되어 있는 아목은 한국인의 입맛에도 어울리는 보양식입니다.





독자가 꾸미는  
하나되는  
아시아



장원

**엄마는 살 빼고 아이는 살 찌고**

해가 지면 베트남 호치민시의 공원 광장으로 아줌마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단체로 신나게 춤을 춥니다. 달밤에 체조는 1시간 넘게 계속됩니다. 따라 온 아이는 지겨워서 칭얼거립니다. 엄마는 아이 손에 달콤한 쿨라를 들려줍니다. 엄마 땀살 빠지는 동안 아이는 비만아가 될까 걱정됩니다.

김진례 남동구 소래역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맞아 ‘아시아’를 주제로 한 사진을 받습니다. 아시아 풍경 에 대한 단상,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보내 주세요.  
※ 채택되신 분께는 은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노을을 향한 손짓**

아내와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화이트 비치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멋진 건 보라카이의 노을이었습니다. 아내가 고운 손길로 노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재성 남구 경원대로

**북경에서 무대 위 ‘금면왕조’**

북경에서 장예모 감독의 쇼 ‘금면왕조’를 보았습니다. 이 공연에서는 홍수 장면이 하이라이트입니다. 10여 분 동안 물이 넘치는 무대가 예술이었습니다.

고혜원 남동구 하촌로



**원타이 화원에서 꽃향기에 취해**

중국 광저우의 아름다운 꽃동산 원타이 화원입니다. 알록달록 예쁜 꽃들의 향연에 한동안 취해 있었습니다.

김은영 남동구 호구포로



**반짝이는 아이들의 마음**

필리핀 세부에서 아이들이 환한 웃음을 터트리며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맑지 않지만, 아이들의 동심은 해맑기만 합니다.

신민섭 서울 강남구



**빛나는 홍콩의 야경, 그보다 더 멋진 추억**

세계 3대 야경 중 하나인 홍콩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마치 엽서에 담긴 그림 같은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납니다. 그 안에서 좋은 벗들과 야경보다 더 멋진 추억을 아로새기고 왔습니다.

이의림 부평구 수변로



## 괜찮아! 괜찮아!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면 선수들의 숨 막히는 열전이 펼쳐진다. 메달을 획득하는 선수도 있고, 예선에서 떨어져 일찌감치 짐을 싸야하는 선수들도 있을 것이다.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들어 할 때, 용기와 위로를 북돋을 수 있도록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을 건네보자.

영 어	Come on!! 킴 온!!
중 국 어	(한자) 没关系! (병음) méi guān xi! 메이관시
일 본 어	(외래어에서 유래된 현대식표현) ドンマイ! ドンマイ!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 大丈夫(だいじょうぶ)! 大丈夫! 돈마이! 돈마이!(영어의Don't mind에서 유래) 다이쵸부! 다이쵸부!
마 인 어	Tak apa tak apa! 닥 아바 닥 아바
베트남어	Không sao! Không sao! 콩 사우! 콩 사우!
몽 골 어	зүтгээр! зүтгээр 죽르!죽르
타 이 어	ไม่เป็นไร!ไม่เป็นไร! 미이 뽀라이! 마이 뽀라이!
라오스어	ບໍ່ເຫຍັງ! ບໍ່ເຫຍັງ 버헨냥! 버헨냥
크메르어	មិនអីទេ! មិនអីទេ! 맨 어아이 떼! 맨 어아이 떼!
러시아어	Нормально. 나르말노
아 랍 어	لا بأس 라 바으쓰







## 강릉 찍고 부산까지~ 인천AG 홍보

대국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단이 전국적으로 대회 홍보에 나선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가 운영하는 홍보단은 이달 한 달 동안 아시아경기대회의 협력도시인 서울, 수원, 충주, 고양, 화성, 안양 등을 비롯해 여름철 휴가지인 부산, 강릉 등을 방문해 대회를 홍보할 계획이다. 홍보단은 대회의 주제가 '온리 원(Only One)'의 플래시 몹 시연과 거리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으로 성화봉송 '스마트 토치 릴레이'를 시연하고, 대회 마스코트인 물범 삼 남매 캐릭터를 활용한 현장 이벤트를 펼쳐며 대회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 일본 삿포로에서 인천AG '펀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해외 홍보행사인 펀런(Fun Run)이 지난달 6일 일본 삿포로 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6시간 릴레이 마라톤'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삿포로 시민 500여 명이 참가해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 대회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대회 주제가 '온리 원(Only One)'을 선보이며 대회를 적극 홍보했다. 특히 '스마트 토치 릴레이' 행사를 진행하며 일본 현지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 인천AG, 현빈이 응원해서 든든해요

영화배우 현빈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에 나선다.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현빈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현빈은 이 자리에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매우 영광이다. 앞으로 대회와 개최도시 인천을 알리는 데 힘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현빈은 대회 기념주화 발행을 축하하며 기념주화 전화중 세트 1호의 구매 예약을 신청하기도 했다.



## 동계스포츠 스타도 인천AG 홍보한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이상화(25·서울시청)와 박승희(22·화성시청)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홍보대사로 나선다. 두 선수는 지난달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들은 대회 기념주화 세트를 예약 접수하고 '인천아시아경기장 관람석 이름짓기'를 신청하며, 대회를 향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그리고 "올림픽 때 국민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대회를 홍보하고 응원하며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저탄소친환경 대회, 대학생이 나선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탄소 감축 및 상생 개념을 도입한 친환경 대회로 치른다. 이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저탄소친환경 대학생 시민주문단 10명을 위촉했다. 인천을 비롯해 전국 대학생 25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대회를 친환경적으로 치르기 위한 정책자문, 저탄소친환경 생활실천 홍보, 일상생활에서의 탄소감축 여론조성, 평가와 모니터링 등에 참여한다. 대학생 시민주문단은 젊은 세대의 감각을 활용한 친환경 콘텐츠를 제작해 저탄소친환경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는 데 기여한다. 또 이와 함께 대회 기간 중 오프라인에서 대국민 친환경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시아를 춤추게 하자'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해외 홍보 캠페인 'Cheer Asia(아시아를 춤추게 하자)'가 홍콩에서 열린 'PR 위크 아시아 2014'에서 2개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Cheer Asia'는 이번 행사에서 올해의 아태지역 캠페인 'Asia-Pacific PR Campaign of the Year' 방송·비디오 우수 활용 사례 'Best Use of Broadcast/Video' 2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PR 위크 아시아는 한 해 동안 아시아에서 진행한 성공적인 PR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국제 홍보마케팅 행사.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국가의 주요 정부기관, NGO, 기업체 등에서 다양한 홍보 캠페인을 출품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 경기장 관람석에 '박태환'을 새긴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대사인 '마린보이' 박태환이 지난달 12일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박태환은 이날 언론과의 귀국 인터뷰를 마치고, 아시아경기대회 공식 기념주화를 구매 예약했다. 또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대회 경기장에 관람석 이름 짓기를 신청했다. 박태환은 "기념주화가 디자인이 뛰어나고 소장가치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도 대회의 성공을 응원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기념주화를 구입하고, 관람석 이름짓기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뽀아래! 인천의 열정, 뽀아래! 아시아의 심장'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응원구호를 선정 발표했다. 조직위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회 응원구호 공모전을 진행했다. 응원구호 총 928건이 접수된 가운데 뽑힌 응원구호는 '뽀아래! 인천의 열정, 뽀아래! 아시아의 심장'. 인천이 품은 뜨거운 열정과 패기를 맘껏 발산하고, 인천을 찾은 아시아인이 하나되어 선수들과 한마음으로 즐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마라톤 코스 국제공인 획득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라톤 코스가 지난달 29일 국제공인을 받았다. 이번 코스는 육상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및 유관기관 3년간의 신중한 검토와 답사를 거쳐 정해졌으며,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두루 담은 코스로 구성했다. 42.195km에 이르는 코스는 송도센트럴파크~송도국제도시~송도3교~인천항~동인천역~배다리길~봉수대로~청라국제업무지구~인천아시아드경기장으로 이어진다. 마라톤 경기는 여자부가 10월 2일 오전 9시, 남자부는 폐막 전날인 10월 3일 오전 9시에 각각 열린다.





#### 인천 장애인AG, D-100 성공다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0일 대회 D-100을 맞아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전 직원 다짐 대회를 열었다. 조직위 직원들은 이날 오전 미추홀타워 중앙광장에 모여 대회 42개국 참가국 깃발을 흔들고 대회 슬로건인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를 외치며 의지를 모았다. 직원들은 이어 대회 응원가 '아이 셰이크(I Shake)'에 맞춰 플래시 몹을 펴고, 마스코트 저노피, 드노피와 함께 대회의 성공을 기약했다.



#### 10월 18일, 인천 장애인AG가 시작됩니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D-100 기념행사가 지난달 1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어린이·청소년백일장' 시상식이 열리고, 이어 대한패럴림피언클럽이 대회 후원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대한패럴림피언클럽은 장애인 국가대표 및 은퇴 선수들의 모임으로 70여 명이 소속돼 있다. 또한 행사 후 진행한 SBS라디오 '두 시탈출 컬투쇼'에서는 대회 홍보대사인 시각장애 방송인 이동우와 대회 개폐회식 총감독을 맡은 박칼린씨가 참석해 대회 홍보에 나섰다.

#### '저노피'와 '드노피' 공원에서 만나요

인천 내 공원 5개소에 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저노피'와 '드노피' 조형물이 세워졌다. 마스코트는 해마다 강화도를 찾아오는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모티브로 했으며, 참가 선수들의 비상과 염원을 담아 푸른 하늘 '저노피'와 승리의 함성 '드노피' 라고 이름지었다. 마스코트는 이번에 인천대공원, 소래생태공원, 부평공원, 중앙공원, 월미공원 등 5개소에 조형물로 설치돼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널리 알린다.



## 우리가족 안전지킴이

동남아에서는 네댓 명의 식구가  
오토바이 한 대에 꼭 끼서 함께 타고 가는 광경을 흔하게 봅니다.  
헬멧은 가정의 필수 안전용품입니다.  
문밖에서 가지런히 놓인  
아빠 거, 엄마 거, 아들 거 그리고 딸의 헬멧이  
참 단란해 보입니다.

-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 충남, 대구, 부산까지 인천 장애인AG 홍보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국내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펼친다. 조직위는 마스코트 저노피, 드노피와 함께 홍보단을 꾸려 지난달 17일 대구를 시작으로 충남, 부산, 서울, 경기, 광주 등 6~8개 도시를 순회하며 전국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홍보활동은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이 함께 참여해 행사와 시민들의 반응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며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 함께 불러요, 'I Shake'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는 지난달 8일 아이디엔터테인먼트와 공식 대회응원가 제작, 사용을 위한 협약을 가졌다. 대회 공식 응원가 '아이 셰이크(I Shake)'는 (주)아이디엔터테인먼트의 재능기부로 제작됐으며 대회가 마무리되는 올 12월까지 대회 홍보, 기념행사 등 다양한 행사에 활용한다. 아이 셰이크는 경쾌한 댄스곡으로 래퍼 미풍과 5인조 여성댄스그룹 틴트가 참여해, '축제 안에서 하나 되어 신명나게 놀며 대회를 즐기자'는 내용을 담았다.



#### 한국 휠체어농구팀, 넘버 원!

인천장애인올림픽 휠체어농구 한국 대표팀이 2014 인천세계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고인 6위의 성적을 달성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후보로 꼽히는 일본과 이란을 꺾어, 인천장애인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수단은 일본과 60대 58의 경기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으며 이란과의 경기도 박빙의 승부 끝에 2점차로 역전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 휠체어농구 예선에서 일본과 한 조에 편성돼 있다.